

寒岡의 生涯와 文學

金 光 淳

《目 次》	
I. 序 論	(5) 憂國歎時
II. 生涯와 文學思想	(6) 惜別追慕
III. 學 統	3. 詩的 技巧
IV. 漢詩 分析	(1) 詩形式
1. 形式	(2) 特異한 表現
2. 內容	(3) 諷刺的 寓意
(1) 學問修德	(4) 寫實的 直叙
(2) 江湖述志	V. 賦, 紀行文, 記, 序, 跋, 論
(3) 致仕歸田	VI. 結 論
(4) 節義清貧	

I. 序 論

寒岡의 生涯와 文學을 論하기 爲해 먼저 寒岡이 살고 간 生涯와 思想, 그리고 그의 學統과 交友關係를 考察하되, 그의 文學을 理解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側面에다 초점을 맞추어 叙述하고자 한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寒岡은 中宗 38年(1543 A.D.) 七月九日 慶尙道 星州 沙月里에서 判書公 思中의 세째 아들로 태어나서 光海 12年(1620 A.D.) 庚申年 正月一日 泗陽精舍 持敬齋에서 병으로 눕게 되어, 5일째 되는 날 아침에 家禮會通을 일일이 閱覽하고 題名을 고치기를 의논하다 酉時에 이르러 자리가 바르지 않다고 연거푸 세 번이나 말하여, 侍者가 부축하고 자리를 바로 하였는데, 바로 눕자 곧 考終하였으니, 享年 78歲였다.

여기서는 그가 一生을 살아온 자취와 일관된 思想을 考究하고, 그의 學統을 考察하기 爲해 學問의으로 가까이 지냈던 交友關係를 中心으로 論述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의 文學을 論함에 있어서는 文學的인 價値가 높은 漢詩를 中心으로 이를 分析 詳論하기로 한다. 이 외에도 한 편의 賦와 日記體 形式의 紀行文, 그리고 記, 序, 跋, 論에 對해서는 作品 內容 紹介에다가 簡略한 論述로써 끝맺고자 한다.

本 研究의 主된 研究對象인 詩는 寒岡先生文集 卷一에 收錄되어 傳하는 漢詩 39首와 寒岡先生續集 卷一에 傳하는 漢詩 16首를 對象作品으로 하고, 賦, 紀行文, 記, 序, 跋,

論은 寒岡全書에 收錄된 것을 텍스트로 한다.

II. 生涯와 文學思想

寒岡은 中宗 38年(1543 A.D.) 癸卯 壬子 子時(七月 九日)에 慶尚道 星州 沙月里(現 柳村)에서 判書公 思中의 세째 아들로 태어났다. 寒岡이 태어났을 때 그 父親이 크게 기뻐하여,

此子 則當爲名賢¹⁾

이라고 하였으니, 이는 星辰의 祥瑞를 받고 伽倻의 靈氣를 타고 後日에 賢哲이 될 것을 미리 점치고 있었다. 그의 諱는 述요, 字는 道可이며, 姓은 鄭氏이다. 鄭氏의 本貫은 忠淸道 淸州로 牧隱 李穡이 말하는 바 西原大姓이다.

그의 家系를 一瞥하면, 始祖 克卿은 高麗 仁宗·毅宗 年間の 保勝別將 贈中郎將이며,²⁾ 그의 孫 頤는 高宗朝에 神虎衛大將軍 贈監門衛上將軍으로 寒岡年譜世系圖에 所載된 실 제상의 上世로 寒岡의 12世 祖上이다. 上將軍 후로 僉議贊成 璫, 重大匡淸河君 愼, 左諫議大夫 諱, 進賢館 大提學 樞로부터 朝鮮朝 開國功臣 政堂文學 西原君 摠에 이르기까지 文學으로서 5代를 이어왔다. 高祖 沃卿은 司憲府 執義요, 曾祖 胤曾은 鐵山郡守 贈吏曹判書이며, 祖 應祥은 司憲府監察 贈承政院左承旨로 寒暄堂 金宏弼의 사위다. 父親 思中은 어질면서도 세상에 나오지 않아 고을에서는 그를 참된 品行이라 稱頌하였다. 그가 玄風 外家에 와 있으면서 星州李氏를 아내로 맞아 寒岡을 낳으니, 名臣의 世家로서 德을 숨겨 昌盛하지 않으면 後代에 반드시 뛰어난 人才가 있게 된다 함이 바로 이것이다.³⁾

그의 兄 參贊公 适과 栢谷 崑壽가 모두 귀하게 임용되었는데, 栢谷은 宣祖 때에 西川君에 봉해 졌으며 耆德으로 일컬어졌다.

貞夫人 李氏는 本貫이 光州이며 奉事 樹의 딸이다. 寒岡보다 11년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1男 3女를 두었다. 아들 樟은 全羅道 都事이고, 사위 세 사람은 校理 姜縉, 奉事 盧勝, 그리고 府使 洪燦이다. 樟은 3男 1女를 두었는데, 아들은 惟熙, 惟熟, 惟薰이며 惟熟과 惟薰는 다같이 初仕로 參奉이 되었고, 사위는 선비 盧增이다.

上述한 家系를 圖示하면 다음 페이지의 도표와 같다.

寒岡은 幼年時節부터 天才가 發越하여 神童으로 불리웠으며, 7세 때는 손님 앞에서 自己의 抱負와 氣像은 堯舜과 같다⁴⁾는 奇想天外의 대답을 하여 世人을 놀라게 했으며,

1) 寒岡全書(以下全書로 略稱)下, 年譜附錄, 卷二, 行狀.

2) 增補文獻備考, 卷四十八.

3) 許穆, 寒岡先生文集序.

4) 先生着紅絲帶 出拜客 客戲曰 爾做何官 先生曰 吾世世爲卿 吾當帶金衣緋 故試帶之爾 伯氏詞之曰 此兒狂甚 先生曰 我非狂也 乃有堯舜氣像耳 <全書下, 年譜 卷一>.

뒷날 海東續小學에 所載된 嘉言에,

옛사람은 반드시 뜻을 잘 세워야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伊尹이 처음에 세상 일을 맡을 뜻이 없었다면 莘野의 일개 농부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요, 顏淵이 처음에 仲尼를 사모하는 뜻이 없었다면 어찌 석달 동안이나 어진 행실을 비루한 거리에서 행하였으리요? 하물며 우리는 다 孟子가 말한 이른바 가히 堯 임금 舜 임금과 같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니, 모름지기 저마다 분발하여 뜻을 세우고, 스스로 힘쓰기를 마치 않으면 어찌 우리들 가운데서도 역시 영화롭게 빛나는 즐거움과 변치 않는 지조가 나타나지 않으리요?⁵⁾

明宗 6年, 寒岡 9歲되던 해 3月 父親 判書公이 別世하였는데 어린 나이에 執喪하는 凡節이 마치 成人같아, 보는 이마다 그 의절함에 감탄했으며, 이때 이미 큰 人物다운 風度가 엿보였다. 그 이듬해에는 學問에 뜻을 두고 發憤讀書하여 大學·論語를 읽고 그 大義를 통하고 있었는데, 그의 伯氏가 그에게 말하기를,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너를 항상 염려하셨는데 너는 항상 학문에 힘써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이에 명념하고 分別하여 스스로 게을리하지 않았다. 12歲 때는 孔子의 畫像을 壁에 붙여 놓고 매일 보며 畫像에 절하였으니, 어릴 때부터 科擧보다는 聖賢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서 그 行한 바를 後代에 전하는 것이 더욱 값진 길임을 깨달은 듯하다.

大丈夫心事 白日與青天
磊落人皆見 光芒正凜然

明宗 10年 13歲 때에 그 當時 星州 鄕校의 教授로 와 있던 南冥 曹植의 門人 德溪 吳健으로부터 周易을 배우게 되었는데, 乾坤 二卦를 배우고 나머지는 類推하여 達通하니

6) 全書上, 文集, 卷一, p. 14.

스승 德溪가 同學 諸生에게 이르기를, 너희들의 스승이 될 이는 마땅히 鄭生이다”라고 하였다. 그 후 어느 가을 同門 諸生들이 七夕會에 글을 짓게 되었는데, 그는 즉석에서 글을 지어도 格式에 어긋남이 없고 理致에 맞아, 이에 德溪는 크게 놀라서 超人의 才操라고 격찬했다. 이 때 그는 스승 德溪 門下에서 渾厚한 資質과 弘毅한 氣像을 크게 본받았다.

明宗 18年, 21歲되던 봄 朱子學의 泰斗 退溪 李 滉을 拜謁하여 先生의 禮를 닦고 하룻밤을 留하면서 性理學에 對해 論하다가 돌아왔다. 그 때 退溪가 柳希范에게 보낸 편지에, ‘鄭述가 하루를 머물고 갔는데 매우 英敏하더라’⁸⁾ 했고, 또, 李龜巖 楨의 답장 편지에서 ‘鄭崑壽와 그 아우 述는 모두 학문에 뜻을 두고 善을 좋아하는 선비이니, 寒暄堂의 外孫으로 어찌 그 영향이 없으리오’⁹⁾ 했으며, 또한, 德溪에게 편지를 하여 그 才能을 極讚했다. 그 해 가을에는 鄉試의 進士 初試에 合格하고 12월에 光州 李氏와 婚姻하였다. 이듬 해 會試 應試를 위해 上京하였으나 마음에 느낀 바가 있어 禮闈에 들지 않고 歸鄉하였다. 그 후 科業에는 不赴하고 求道의 一念으로 性理學에 從事하였으며 退溪의 門下에 여러 차례 왕래하여 많은 學問을 터득하고 心經을 질의하여 眞理를 理論보다는 實生活 속에서 찾아야 한다는 知行一致의 思想을 전수 받게 되었다.

明宗 21年(1556 A.D.), 寒岡 24歲되던 봄날 天王峯下의 德山에 入洞하여 있던 隱逸處士 南冥 曹植을 拜謁하니, 南冥이 이르기를, “네가 出處去就를 적의하게 하므로 내 마음을 許하노라. 士大夫 君子의 大節은 오직 出處에 있을 따름이다.”¹⁰⁾라고 하였다. 그는 南冥에게서 出處의 義理와 孤高한 操執과 氣概를 배움은 물론 反躬體驗한 持敬實行의 大主眼을 배우게 되었다.

宣祖 六年(1573A.D.)에 才學이 있는 선비를 추천하라는 명을 내리매, 同鄉人 東岡 金宇頤이 修撰官으로 있으면서 宣祖大王에게 奏請하기를, “鄭 述라는 자가 있는데, 李 滉·曹 植의 門下에 유학하여 經術에 밝으니, 布衣로도 불려다 治道를 물을 만합니다.”¹¹⁾ 하니 吏曹에서 6品 벼슬을 주고자 품신하였으나 대신들의 반대로 되지 않았고, 처음으로 禮賓寺參奉에 除授되었으나 不赴하였다. 이 때에 蒼坪山 先隴 西麓에 松楸를 보호하기 위하여 寒岡精舍를 지었다. 이 精舍의 이름은 朱子의 寒泉의 뜻을 취하여 寒岡이라 하였다. 北쪽 바위 위에 이 精舍가 있으며, 남산 꼭대기에 悠然臺가 있다. 그 당시 그는 朱子書節要總目을 撰하고 家禮集覽補註를 完成하였으며, 이듬해에는 寒暄堂 金宏弼 年譜 및 師友錄을 撰하였다. 宣祖 8年(1575A.D.)에는 健元陵參奉에 除授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고, 11年(1578A.D.)에는 司圖署宗簿主簿 및 義興, 三嘉의 縣監에 陞授되고, 12년에는

7) 汝嶽當師鄭生也〈全書下, 年譜, 卷一〉.

8) 全書 下, 年譜 卷一.

9) 全書 下, 年譜 卷一.

10) 汝於出處粗有見處 吾心許也 士君子大節 惟在出處而已 〈全書 下, 年譜, 卷三, 行狀〉.

11) 有鄭述者 遊李滉曹植之門 明於經術 可以布衣召問治道也 〈許穆, 寒岡鄭先生墓誌銘〉.

知禮縣監에 除授되었으나 모두 나아가지 않았다. 이 해 季秋에 李伯愉 等 몇 사람과 함께 近思錄 一冊과 南嶽唱酬를 가지고 伽倻山 遊行에 나섰다. 먼저 後岡에 올라 先祖의 先塋에 배례하고, 水石과 丹楓을 玩賞하며 紅流洞을 거쳐 伽倻山 第一峯에 올라 사방을 바라보고 造物主의 섭리와 대자연의 偉大함에 새삼 경탄하였다. 아득히 멀리 조그맣게 솟아 있는 智異山을 바라보고는, “이 남방 第一 名山에서 鄭一蠶先生은 어린 나이에 德을 쌓았으며 曹南冥先生은 晩年에 隱遁養高하였다. 兩先生으로부터 學統이 널리 전파되었으니 얼마나 고마운 山인가”¹²⁾라고 하고, 또 蒼茫히 하늘 한 모퉁이에 약간 모습만 보이는 金烏山을 보고는 高麗 五百年의 社稷을 불들려고 절개를 지킨 吉治隱을 생각했다. 저녁에 험한 바윗길의 蘇利庵을 내려오면서는 曹南冥의 ‘善을 행함은 산을 오르는 것과 같고, 惡을 행함은 산이 무너져 내림과 같다’¹³⁾고 한 말을 읊조리기도 했다. 旅行中 저녁에는 늘 危坐하여 잠지도 쉬지 않고 讀書을 하고 事物을 窮究하였으니 그의 사실적이고 綿密한 生活觀을 알 수 있다. 그의 一貫된 生活은 平素에 門徒들에게 말한 讀書과 登山의 關係에서도 볼 수 있다.

매저 책을 읽는 일은 산을 유람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산을 오르려다 반도 못가서 그만 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산을 두루 돌아보았다고 하더라도 그 참된 경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으니, 반드시 그 산수의 경치를 알고서야 가히 산을 유람한다고 말할 것이다.¹⁴⁾

屢次 官職에 임명되었으나 사양하다가 宣祖 13年(1580 A. D.)에는 昌寧縣監에 除授되었는데, 上이 引見하고 李滉과 曹植의 학문을 물으니, 답하기를, “滉은 德이 후하며 학문이 순수하여 학자들이 쉽게 찾아들 수 있으나, 植은 特立獨行하여 학자들이 要點 잡기를 어렵게 여깁니다.”¹⁵⁾라고 하였다. 上이 또 大學의 工夫에 대한 主旨를 묻자, 답하기를, “先儒들이 天德, 王道의 要點은 혼자 있을 때를 삼가는 데에 있다고 하였으니, 帝王의 학문도 그 어느 것이든 혼자 있을 때를 삼가는 데 달려 있지 않는 것이 없읍니다.”¹⁶⁾라고 하였다. 上이 또 물기를 治邑에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를 물으니, 대답하기를, “옛 사람이 갓난 아기를 보살피듯하라고 하였으니, 臣이 불민하오나 이 말을 들어 實踐하겠읍니다.”¹⁷⁾하니 上은 홀륭하다고 칭찬하였다. 그리고 縣으로 가서 어진 牧民官이 되어 고을 선비들과 더불어 呂氏鄉約을 본따서 講會稷를 만들고 군내 여러 곳에 書齋를 세우고 訓長을 선정하여 학문을 가르치게 했다. 寒岡은 초하루와 보름에 學校에 나가 孔子像을 뵈고 明倫堂에서 선비들과 더불어 종일 講論했다. 書齋가 퇴락했을 때는 즉시 고치고 祭祀 때에는, 쓰는 그릇이나 옷을 새롭게 갖추어서 春秋의 釋奠祭를

12) 全書 上, 文集 卷九 雜著, 遊伽倻山錄.

13) 全書 上, 文集 卷九 雜著.

14) 夫讀書 如遊山 有登山未半而止者 有歷遍而未知其趣者 必也知其山水之趣 方可謂遊山 (朴在馨, 前揭書, 卷五).

15) 滉德厚而學純 學者易以尋入 植特立獨行 學者難以爲要也 (許穆, 寒岡先生文集序).

16) 先儒言天德王道 其要在謹獨 帝王之學 亦無一不在謹獨 (全書下, 年譜, 卷二, 墓誌銘).

17) 古人云 若保赤子 臣不敏 請事斯語 (同上).

모셨다. 1年만에 監司가 治績을 보고하는데 最¹⁸⁾가 되어 九月에 司憲府 持平이 되고, 10월에 宗親府 典簿, 11월에 儀賓府 都事, 12월에 社稷署令에 임명되었으나 辭任하였다.

宣祖 16年(1583A.D.) 2월에 다시 江原都事, 3월에 忠淸道事, 여름에 工曹正郎에 임명되었으나 不赴하고 蒼坪에 檜淵草堂을 짓고 門下 諸生과 더불어 月朔講會稷라는 모임을 만들고 規約을 정하여 제자들을 가르쳤다. 그 규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의 모임에 들어오는 사람은 저마다 모든 일에 敦篤하고 부지런하며, 책을 읽고 行實을 닦으며, 비록 아는 것이 알든지 깊든지, 才能이 높든지 낮든지 그 뜻하는 方向은 반드시 옛사람의 올바른 行實을 배우는 데 두고서, 반드시 그 의리를 바로잡아, 그 이익을 圖謀하지 않고, 반드시 그 도리를 밝혀 그 功을 헤아리지 않으며, 富貴에 汲汲하지 말고, 貧賤에 너무 근심하지 말며 선비다운 마음가짐을 갖기를 바라며 모름지기 子路처럼 의롭고 勇猛스러운 氣象에서 마음을 분발하여 超然히 이익과 권세에서 깨끗이 벗어나고, 富貴크 해서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 뒤에야 가히 사람의 욕심을 없애고 하늘의 도리에 나아갈 것이다. 周敦頤는 말하기를, '귀한 사람들이 타는 수레나 관을 一銖처럼 가벼이 여기고, 부귀를 진흙처럼 보라'고 하였는데, 공부하는 사람이 모름지기 이 뜻을 알면 바야흐로 평범하지는 않을 것이니, 각각 지금의 처지를 따르고, 누워침을 지난 일에서 찾느라 애쓰지 말고, 타고난 性稟이 미치지 못할 것을 한탄하지 말고 오직 마땅히 마음을 가다듬어 스스로 힘쓰며, 그 功을 백 배나 더하여 낡은 버릇을 벗어 버리고, 그 氣質을 變化시키면 지금 사람들을 어찌 옛 사람에게 미치지 않겠는가? 잘 되면 능히 聖人이나 賢人이 될 수도 있고, 못 되어도 좋은 사람이나 착한 선비가 되는 데에서 잘못되는 일이 없을 것이니, 이는 오직 나의 힘을 쓰는 것이 어떠한가에 달려 있을 따름이다.¹⁹⁾

그는 泉石의 絶勝을 좋아하여 이 檜淵草堂을 棲息處로 삼고 그 뜰에 梅花 백 그루와 脩竹을 심어 百梅園이라命名했다. 軒名은 玉雪이고 집의 방 이름은 不愧寢이요, 窓은 梅窓이라 하고 다음과 같은 詩를 읊었다.

小小山前小小家
滿園梅菊逐年加
更教雲水粧如畫
畢世生涯我最奢 <題檜淵草堂>²⁰⁾

이 詩는 百梅園을 두고 읊은 것으로 世俗的 富貴榮華를 등진 대신 自然美를 마음껏 享有하는 自己의 生活을 가장 奢侈스럽다라고 말한 것이다.²¹⁾

또,

18) 殿最의 最를 말한다. 觀察使가 6月과 12월에 지방 수령들의 치적을 심사하여 상부에 보고하는데, 가장 우수한 자에 '최', 가장 못한 자에게 '전'을 매긴다. <大典會通, 吏典>.

19) 其約曰 入約之人 各自敦飭 讀書修行 雖知有淺深 材有高下 而要其志趣 必學古人 必正其誼 不謀其利 必明其道 不計其功 勿汲汲於富貴 勿戚戚於貧賤 庶幾有儒者氣味 須激昂於子路 義勇氣象 超然脫灑於利勢 不以富貴動心 然後可以消人欲 而進天理 周子曰 銖視軒冕 泥視富貴 學者須知此意 方不碌碌矣 各從現今地頭 毋勞追悔於既往 莫恨資稟之不及 惟當刻心自勵百倍其功 脫落舊習 變化氣質 則今人何患不及古人乎 高可爲聖賢 下不失爲古人善士 惟吾用力如何耳 <朴在馨, 前揭書 卷五>.

20) 全書 上, 文集 卷一.

21) 李佑成, 全書 上, 解題 引用.

伽川於我有深緣
占得寒岡又檜淵
白石清川終日翫
世間何事入丹田 〈檜淵偶吟〉²²⁾

라고 읊어, 그는 自然을 사랑하면서도 自然을 通하여 스스로의 人格을 陶冶하여 學問의 眞髓를 파고 들었음을 느낄 수 있다.

宣祖 17年(1584 A.D.), 42歲에 同福縣監이 되어 昌寧에서와 같이 學問을 일으키고 設校 하였으며, 10월에 奉訓郎으로 陞差하고, 12월에 邊山을 유람하고 同福志를 이루었다. 이듬해 正月 朝廷에서 儒學者를 대거 불러 小學, 四書의 口訣을 校正하는데 校正廳郎으로 뽑혀 나아갔다. 44歲되던 2월에 慶尚道 都事로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아니하고, 10월에 咸安郡守로 赴任하여 옛 風俗을 찾고 남은 行政을 고치며 度量衡器를 統一하여 百姓들의 세금을 감해 주고 억울한 사정이 없도록 시정했다. 當時 바르지 못한 度量衡器로 억울함을 당하고 있던 이웃 고을 백성들이 寒岡의 善政 소식을 듣고, 세금으로 내려고 가져온 베의 치수가 모자라서 官吏가 그 백성을 질책하며 때리고자 하매, 백성이 말하기를, “나의 발이 咸安에도 있는데 이 베를 咸安에 내던 마땅히 바칠 수 있습니다.”²³⁾ 하니 부정을 해온 官吏가 부끄러워 顏色을 감추지 못했다. 1年 후에는 孝誠이 지극한 奴隸 多勿의 무덤에 祭祀지내고 그 주위에 나무를 심었다. 이는, 多勿의 孝行을 본받아 百姓을 教化하고 人倫 道德의인 面에 애썼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학자들과 더불어 心經과 近思錄을 講論하였다. 49歲 되던 봄날 檜淵 아래 10리쯤 되는 社倉 기와집으로 이사와 欣然해 하며 다음과 같이 읊었다.

小小生涯小小家
志存容膝更無加
半生已熟茅茨下
瓦覆新居便覺奢 〈題社倉新構〉²⁴⁾

宣祖 25年(1592 A.D.) 正月에 通川 郡守로서 金剛山을 遊覽하였다. 여름에 倭寇가 침입하여 서울과 開城 平壤을 연달아 陷落하므로 임금이 西狩하여 [義州로 피난간 것을 말함] 나라가 크게 어지러워졌다. 이 때 그는 義兵을 일으켜 賊을 토벌하고 각 고을에 檄文을 띄워 義兵들로 하여금 적을 攻擊하게 하여 그 고을은 倭寇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보존하였다. 임금의 兄 河鎭君 麟이 金剛山 溪谷에 난을 피해 숨어 있다가 亂民에게 핍박을 받아죽었는데, 난동을 부린 者들이 그 일을 숨겨서 시체가 있는 곳을 알지 못했다. 이에 寒岡이 죄수들을 問招하여 이를 찾아 葬禮를 치렀는데 이것이 임금에게 알려지자, 임금은 이에 대해 슬퍼하며 탄식하여 말하기를, 德을 갚을 길이 없다고 하고 寒岡을 江

22) 全書 上, 文集 卷一.

23) 我有田在咸安 此乃當約咸安 〈全書 下, 年譜, 卷一〉.

24) 全書 上, 文集 卷一.

陵府使에 特拜하였다. 그는 여기서 武器를 수리하고 製造하여 군대를 엄격하게 훈련시키고 屯田을 경작하여 군량미를 축적하고 가난한 백성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 때 海上에서는 李舜臣 將軍이 戰爭을 승리로 이끌고 陸地에서는 義兵이 일어나 倭軍에 對抗하고 있었다. 이때 郭再祐 將軍이 慶南 宜寧에서 義兵을 일으켜 싸우고 있었는데 朝廷에서 郭將軍에 대한 誹謗과 謀陷이 많았다. 이리하여 임금이 寒岡에게 郭將軍에 대해 물었을 때 그가 대답하기를, 郭將軍의 人物된 것은 작은 晉州만을 맡아 싸우기에는 보다 큰 그릇이다라고 하여 困境에 빠진 郭將軍을 도와 주었다.

宣祖 28年(1595. A. D.) 그의 나이 53歲에 承旨로 入直할 때 政治的 抱負를 吐露하여,

壯志平生老未殘
新磨袖裏劒光寒
不須凍死虛堂夜
白日同瞻萬國安 <以承旨入直次壁上同僚韻>²⁵⁾

라고 하였다. 언젠가 經筵에 入侍하게 되어 임금이 물기를, “易에서 程傳과 本義 어느 것이 우선이오?”하니, 대답하기를, “易의 道는 消長盈虛의 이치를 밝혀 時中을 잃지 않는 것이지, 한갓 卜筮로써 앞 일을 안다는 것은 末端일 뿐이므로 程傳이 우선입니다.”²⁶⁾라고 하였다.

宣祖 29年(1596 A. D.) 正月 江原道 觀察使로 赴任하여 임금께 故 忠臣 金誠一을 우러러 崇拜하며 忠臣을 장려해야 한다고 하니, 임금이 기뻐하여 이에 응하였다. 이 때는 兵革이 안정되지 못한 상태여서 임금의 命을 받고 原州에 鶴原城을 쌓아 關東의 堡壘로 삼고, 元忠甲의 祀壇을 설치하였으며, 江陵에 이르러 國殤²⁷⁾에 제사한 다음 여러 郡縣에 命을 내려 모든 遺骨을 거두어 묻도록 하였다. 寧越로 가서는 魯陵을 살렸고 原州에 가서는 隱者 元天錫의 墓에 祭祀지었다. 關東志를 完成하고 12월에 刑曹參議가 되었다. 이듬해 6月 成川都護府使로 임명받아 七月에 부임하였다. 그 때 成川에는 丁酉再亂으로 또 다시 倭寇가 침범하여 王族과 妃嬪들이 피난해 와 있었다. 寒岡은 이들을 경성을 다하여 보살렸고, 王族들은 그의 德望을 두려워한 나머지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고 무척 조심스럽게 지냈다. 이듬해에는 嘉善에 特加되매 上疏하여 사양하였으나 允許를 받지 못하였다. 命을 받들어 高麗朝 忠臣 鄭顥·崔椿命 두 사람의 祠堂을 세우고 中和集說과 古今忠謨를 編次하고 그 후 朱子詩分類도 編纂하였다.

宣祖 33年(1600 A. D.) 58歲에는 副總管이 되었다. 6月 宣祖의 妃 懿仁王后가薨하며 葬禮를 치르려 하는데, 妖妄한 말들이 있으므로 疏를 올려 山陵의 일을 논하였다. 얼마 후 刑曹參判이 되었고, 辛丑年(1601 A. D.)에는 寧越郡守가 되었으나 곧 辭職하고 橫城

25) 全書 上, 文集 卷一.

26) 上問易程傳本義何先 對曰 易之道 明乎消長盈虛之理 不失時中者也 徒以卜筮前知而已者末也 程傳先也 <李肯翹, 燃藜室記述, 卷十八, 鄭述條>.

27) 나라를 위해 죽은 사람 <楚辭, 九歌>.

에 寓居하여 聖賢風範을 編次하였다. 壬寅(1602 A.D.) 正月 忠州 牧使가 되어 北漢江에서 國殤에 祭祀하고 月餘만에 그만두고 돌아갔다. 이 해 4月 다시 부름을 받고 經書 諺解校正廳 堂上으로 초청되어 교정하였으며, 이듬해 3월에 벼슬을 그만두고 木川에 寓居하였다. 九月에 還鄉하여 寒岡北에 夙夜齋를 이루고 古文 興學에 힘썼다. 여기서 伽倻山을 바라보며 지은 詩 一絶이 있으니, 다음과 같다.

未出全身面
微呈一角奇
方知造化意
不欲露天機 <夙夜齋望伽倻山>²⁸⁾

그 후 五先生禮說, 心經發揮 等の 책을 완성하고 鄭仁弘과 絶交하였다. 鄭仁弘과는 일찍이 南冥 門下에 同學한 사이인데 鄭仁弘이 南冥 文集을 編纂할 때 寒岡과 상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取捨하여 歪曲하였기 때문이다.

62歲(1604 A.D.) 봄에 五蒼亭·川上亭을 짓고, 武屹精舍를 완성하였다. 이 武屹精舍는 修道山 속에 있어서 山이 높고 谿谷이 깊어 자연이 맑고 깨끗하며 사람이 사는 곳과 떨어져 있어 寒岡은 이곳에 草家三間을 짓고 많은 書冊을 장서해 두고 한가히 지내면서 門徒들을 가르쳤다. 한편 그는 大伽川 鳳飛岩에서부터 修道山 滿月潭 龍湫에 이르기까지 所謂 武屹九曲을 探勝하고 그 絶景을 咏頌하였으니 九曲의 名稱은 다음과 같다.

一曲：鳳飛岩
二曲：寒岡臺
三曲：舞鶴亭
四曲：立岩
五曲：捨印岩
六曲：玉流洞
七曲：滿月潭
八曲：臥龍岩
九曲：龍湫

또한, 濂洛養壻錄·洙泗言仁附錄 等を 編次하고 景賢續錄·卧龍岩志·谷山洞庵志를 撰하였다. 이듬해 3月 八莒縣 大谷에 外先祖의 墓를 參拜하고 10月에는 伯氏 适의 葬禮를 치르고, 이어 檜淵草堂을 다시 짓고 집의 東畔에 茅齋 一間을 지어서 望雲庵이라 했다. 그 이듬해 5月에는 朔望通議之規를 定하여 後進을 가르치고 八月에 光州牧使에 임명되었으나 나아가지 아니하고 9月에 玄風에 있는 道東院祠를 拜謁하였다. 10月에 寒暄堂의 墓에 祭祀를 올리고, 11月에 三嘉에 있는 龍岩院祠를 拜謁하고, 이어 晉州에 가서 德山院祠를 拜謁하고, 南冥 墓에 제사를 올렸다. 이어 山陰의 吳德溪의 墓를 參拜하고, 咸

28) 全書 上, 文集 卷一.

陽에 이르러 濫溪院祠를 拜謁하고, 鄭一蠹의 墓에 제사를 올렸다.

宣祖 40年(1607 A.D.) 丁未 三月에 赴任하여 四郡의 山水를 거쳐 竹嶺을 넘어 豐基에 이르러 黃錦溪 墓에 제사 지냈다. 禮安으로 가서 陶山院祠, 易東院祠를 拜謁하고, 李退溪와 趙月川의 墓에 제사드리고, 安東에 도착하여 外先祖되는 權太師, 金忠烈公方慶, 權忠定公撥, 金鶴峯誠一の 墓를 參拜하였다. 나라의 命으로 易傳을 刊行하고, 太極圖說, 古今人物志, 儒先續錄 等の 책을 完成하였으며, 福州志를 編纂했다. 11월에 辭任하였다.

戊申(1608 A.D.)에 光海君이 즉위하여 大司憲에 特拜되었다. 이 때에 司諫院·司憲府·弘文館 三司가 臨海君을 告變하였는데 다투어 依法 처치할 것을 主張하였다. 사실이 모두 無根하였는데도 의아심이 쌓여 일이 그대로 成立되게 되었다. 이에 寒岡이 疏를 올려 諫하기를, “先王의 末命이 귀에 남아 있으며 先殯이 일찍 세상을 떠나 兄弟 두 분이 寢食을 같이 하시었는데 殿下의 지극하신 정분에는 더욱 차마 하실 수 없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獄事는 반드시 窮究할 것이 아니고, 사람은 반드시 끝까지 審問할 것이 아니며, 죄는 반드시 다 캐어낼 것이 아니며, 法은 반드시 다 施行할 것이 아닙니다.”²⁹⁾라고 하였다. 그러나 獄事가 이루어지자 온 나라 사람들이 이를 억울하게 여기므로, 寒岡이 연이어 劄子를 올려 自劾하기를, “臣은 殿下께서 人倫의 지극한 사랑을 온전히 하시기를 바랐는데, 物議가 더욱 비등하여 全恩을 그르다 하니, 臣은 榮華를 탐해 굳이 祿位를 받고 있어, 人臣으로서 去就의 도리를 크게 잃었습니다.”³⁰⁾라고 하고, 드디어 사퇴하였다. 그러나 禮曹에서 大喪에 관한 喪服의 禮를 물으므로 喪禮 18條를 講定함이 있었다.

光海 2年(1610 A.D.) 여름에 鄉人 朴而立이 誣告한 일이 있어 州府에 나아가 疏를 陳呈하고 待罪하였다. 道內 儒生들이 闕에 나아가 誣告를 변명하였다. 조정에서는 그에게 아무런 허물도 내리지 않기로 답하였다. 이듬해에는 周易·詩經·書經 等の 經文 口訣을 정리하였다. 그후 八莒縣 蘆谷으로 이사하였다.

光海 5年(1613 A.D.) 癸丑, 71歲 여름에 朴應犀라는 자가 國舅 金悌男이 永昌大君을 推戴하고자 한다고 告變하였는데, 일이 위로 仁穆大妃까지 連累되었으므로 寒岡이 上疏하기를, “事件 자체는 도저히 容恕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殿下께서 이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혹시라도 未盡한 點이 있게 된다면 앞으로 天下 後世의 疑問이 되어 끝내는 聖躬에 累가 될 것이오니, 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帝王들의 과거 行蹟을 살펴보셔서 옛 聖人들이 變告에 대처한 道를 깊이 생각하시고, 자신의 행함에 털끝만큼의 겸연적음도 없이 홀륭히 처결하신다면 온 나라가 다함께 기뻐하고 後世에서 이를 본받게 될

29) 先王末命在耳 先殯早世 兄弟二人 寢食不離 殿下至情 尤有不忍焉者 獄不必盡究 人不必要問 罪不必盡戮 法不必盡施也 <許穆, 寒岡先生文集 序>.

30) 臣望 殿下全葬倫之至愛 而物議愈騰 以全恩爲非 臣貪榮冒祿 大失人臣去就之義 <同上>.

것입니다.”³¹⁾라고 하였다. 光海君이 끝내 金悌男을 죽이고 永昌大君을 가두고 仁穆大妃를 異宮에 거처케 하였으므로, 또 劄를 올리기를, “옛날 周景王 때, 賊臣 擔括이 내란을 일으켜 王子 倭夫를 세우려 하였는데, 倭夫는 擔括이 자신을 세우려 하는 것을 몰랐으나, 이윽고 일이 발각되어 擔括이 망명하니, 尹言多·劉毅 等 5인이 倭夫를 죽인 일이 있습니다. 이는 王命이 아니었지만 孔子가 春秋에 쓰기를 ‘天王이 그의 아우 倭夫를 죽이다.’라고 하였으니, 筆法이 이와 같습니다. 倭夫를 죽인 것이 당초에 景王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다만 이를 禁하지 못하였을 뿐이었는데도 左氏傳에서는 ‘죄가 왕에게 있다.’라고 하였으며, 穀梁子의 傳에는 ‘그것은 너무 심하였다.’ 하였으며, 杜預의 疏에서는 ‘骨肉을 죽였다.’라고 하였습니니다. 景王의 과실은 5인의 大夫가 만든 것입니다. 오늘날의 일은 그가 어려서 아무것도 모름이 倭夫가 사실을 몰랐던 정도가 아니고, 끊임 없이 처벌의 명을 요구하는 朝廷의 공론도 景王이 금하지 못하였던 것보다 심합니다. 聖上으로 하여금 앞으로 天下後世에 무슨 할 말이 있게 하고자 하려는 것입니까?”³²⁾ 하였다. 또 말하기를, “父子의 관계는 大恩의 관계입니다. 옛날의 臣下된 사람은 궁궐을 찾아 땅에 엎드려 정성을 더하는 것으로 임금을 바로 잡고 勉勵하였는데, 오늘날의 論者들은 궁궐을 떠나 거처를 달리 하라고 請하니, 이는 臣으로서는 이해하지 못할 일입니다. 殿下께서는 반드시 舜임금의 孝心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삼아 자식 된 죄분을 恭遜히 하시고 지난날 섬기시던 바에 변함이 없게 하신다면, 舜임금 같은 大孝가 되는 것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³³⁾라고 하였다. 當時 그의 아들 樟이 서울에 있었는데 上疏文의 내용이 너무 激烈하여 장차 禍가 미칠 것을 두려워하여 이 글을 올리지 않았다.

그는 이 말을 듣고 또 上劄하기를, “臣이 못난 자식을 두었던 바 臣이 죽을까 두려워하여 감히 올리지 못하였습니니다. 臣이 자식을 가르침에 義가 없었으니, 죄는 실로 臣에게 있으므로 다시 글을 올립니다.”³⁴⁾ 하였으나 光海君이 듣지 않았다.

光海 6年(1614 A. D.) 寒岡 72歲 正月에 蘆谷精舍에 불이 나 그가 지은 많은 書冊이 불타고 약간만 남았다. 그 후 蘆谷에서 數十里 東쪽 泗濱으로 이사하고 불탈 때 수습한 것을 가지고 五先生禮說을 編次하였다. 이듬해 5月 중풍으로 오른쪽이 불편하였으나 책 보는 일이나 사람 대하는 일은 여전하여 조금도 倦怠한 모습이 없었다. 이어 禮記喪禮分類를 編纂하고 가을에 朴而立이 誣告하여 重罪를 내리기를 請했으나 光海君은 不問에 처하였다.

丁巳 七月에 東萊 溫泉에 갔다가 돌아와서 十月에 金鶴峯 行狀을 지었다. 겨울에 仁

31) 先生上疏曰 事固有不可貸者 然在殿下處之 或未盡則來天下後世之疑 終累於聖躬者 不可不慎也 博考前後帝王之往跡 深惟古聖人處變之道 使在我者無一毫之不懷 爲盡美盡善 則四方咸悅 後世取〈全書 下, 年譜, 卷二, 墓誌銘〉.

32) 全書 下, 年譜, 卷二, 墓誌銘.

33) 許穆, 寒岡先生文集 序.

34) 全書 下, 年譜, 卷二, 墓誌銘.

穆大妃를 廢位하자는 의논이 성립되매, 그는 다시 말을 다하여 極諫하고자,

宗廟社稷의 大逆이 되어 天下의 大罪를 짊어진 자로서 武翌와 같은 자 또 누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張栻은 당시 폐하지는 않았다는 것으로 말을 삼았고, 朱熹는 ‘中宗으로서서는 감히 出母
하는 일을 하지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大義를 무너뜨리고 大防을 훼손하여 가며 오늘의 主張
하는 말을 따른다면, 殿下는 뒷날 지하에서 장차 무엇으로 先王에게 할 말이 있었으며, 太廟를
출입할 때 무슨 얼굴로 薦享하시겠습니까?³⁵⁾

라고 疏를 草하였으나 미처 올리지 못하였는데, 光海君이 내린 柳渢의 疏에 대한 批答
에, “戊申年에 鄭述가 맨 먼저 全恩說을 발의하여 美名을 빼앗고 國是를 어지럽혔다.”³⁶⁾
라는 말이 있었으므로 그는 諫하여도 되지 않을 것을 알고 그만 두었다. 이 때 五服沿
革圖를 完成하고 鄭一叢 實記를 撰하였다. 琴湖江을 앞에 두고 泗水벌에 泗陽精舍를 지
었다. 그는 이 ‘泗水’라는 이름을 무척 좋아하였는데 그 까닭은 朱子가 살던 中國 新安
西에 伊川이 있어 東으로 흘러 洛江으로 들고, 이곳 達城北에 泗水가 있어 西로 흘러
洛東江에 모이니, 古人이 星山 鄉校 樓閣에 題한 伊川은 흘러 泗水와 이어진다는 말과
一致하기 때문이다.

光海 10年(1618 A.D.), 76歲 되던해 河洛太極圖兩屏을 創造하고 東岡 金字顯 行狀을
撰하였다. 이듬해 6月 道東과 金海에 있는 新山院祠를 두루 拜謁하고, 7月에 蔚山 椒
井과 東萊溫泉에 머물고 昌原 海亭을 거쳐 10월에 돌아왔다.

光海 12年(1620 A.D.) 庚申 正月 一日 泗陽精舍 持敬齋에서 병으로 눕게 되어, 5일째
되는 날 아침에 家禮會通을 일일이 閱覽하고 題名을 고치기를 의논하다 酉時에 이르러
자리가 바르지 않다고 연거푸 세 번이나 말하여, 侍者가 부축하고 자리를 바로 하였는
데 바로 눕히자 곧 考終하였으니 享年 78歲였다. 前年에 伽倻山 북쪽에 산마루 一角이
무너지고 그가 棄世하던 날은 泗上 집 앞의 나무에 木椽가 피었다.

門徒들이 葬禮를 치르는데 始終 儀禮에 따라 행하였다. 蒼坪山 아래 明義齋에 殯所를
차리고 4月 2日 貞夫人 李氏의 墓에 合葬하였는데 이 때 모인 吊客은 慶尚道外에 京畿,
江原, 全羅, 忠清에서 모여 460餘名이나 되었다. 그해 8月 光海君이 禮曹佐郎을 보내어
致祭하고 賻儀도 의식에 따라 내렸으니 이는 그의 죽음을 곧 上達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기가 지나서 致祭한 것이다. 그 후 3年에 文人들이 祠堂을 세우는데 檜淵, 泗陽, 竹
林, 檜原에 다같이 두었다.

1623年 癸亥 6月 憲文大王이 즉위하여서는 賜祭하고 資憲大夫吏曹判書 兼 知義禁府事에
追爵하여 川谷祠에 配享하였다. 또, 2년 후 9월에 관원을 보내어 ‘文穆’이라는 諡號를
내렸는데, 諡法에 勤學好問의 ‘文’字와 抱德懷義의 ‘穆’字이다. 孝宗 8年(1657 A.D.)

35) 宗社之大逆 負天下之大罪者 孰有如武翌者也 張栻以當時不廢爲言 朱熹曰 在中宗 則不敢爲出母之事 壞大義毀大防 以循今日之論 則殿下他日地下將何以有辭於先王 出入太廟亦何以爲類於薦享乎(許穆, 寒岡先生文集序).

36) 許穆, 寒岡鄭先生墓誌銘.

10月에는 贈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 領議政 兼 經筵 弘文館 藝文館 春秋館 觀象監事 世子師로 追尊되었고, 顯宗 3年(1662A.D.)에 고을 북쪽 鎮山 남편 기슭에 改葬하니 蒼坪에 장사한 지 44年 후의 일이다. 肅宗 3年(1677A.D.) 3월에 여러 門生들의 上疏로 인해 임금이 관원을 보내어 諡號의 註를 고쳐 내렸다. 즉, ‘勤學好問之文’을 ‘道德博聞之文’으로 하였다.

Ⅲ. 學 統

寒岡의 學統을 考察하기 위해서는 于先 槿城에 있어서의 性理學의 傳來와 系譜를 概觀하고 아울러 그가 影響을 미친 近畿學派를 살펴보는 것이 順序일 것이다.

槿城에 性理學의 傳來는 高麗末 忠烈王 때 晦軒 安裕가 元나라 燕京에 들어가 朱子書를 베껴 가지고 돌아온 것이 처음이다.

性理學이란 儒敎哲學을 意味한 것으로³⁷⁾ 〈宋史〉道學傳에 보면,

孔子 돌아감에 魯子 홀로 그 道를 傳하여 子思를 거쳐 孟子에 이르렀으나 孟子 돌아간 뒤에 傳함이 없었다. 兩漢이후 儒者의 大道를 論하는 것이 察하되 精하지 못하고 語하되 詳하지 못하였고 異端과 邪說이 또 이 틈을 타서 일어나 千餘年 동안 道가 大壞하러 하였다. 宋나라 中葉에 周敦頤 春陵에 나서 聖賢不傳의 學을 얻어 太極圖說과 通書를 지어 陰陽五行의 理가 命於天 性於人한 것을 推明하였고 張載는 西銘을 지어 理一分殊의 情을 極言하였다. ……明道 初年에 程顥과 그 아우 頤가 出生하여 周氏에게 글을 배워 들은 것을 擴大해서 大學과 中庸의 二篇을 表章하여 論·孟과 같이 併行하도록 하니 이에 있어 위로는 帝王傳心의 奧로부터 아래로는 初學入德의 門에 이르기까지 融會貫通하여 다시 餘蘊이 없었다. 宋이 南渡함에 이르러 新安 程氏 正傳을 얻으자 그 學이 더욱 더 親切하였으니 大抵 格物致知로 先을 삼고 明善誠身으로 要를 삼았다.³⁸⁾

라고 하였는 바 唐나라 때부터 크게 繁昌하기 시작한 老·佛에 刺戟되어 失墜된 儒學 本然의 위치를 찾기 위한 宋代의 思辨의이며 理論的인 體系를 갖춘 學問이다. 一名 宋學 또는 朱子學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宋나라 中葉 周敦頤에 의해 제창되고, 張載·程顥·程頤 등에 의해 繼承되어 南宋의 朱子에 이르러 確立된 所以이다.

이러한 性理學이 麗末에 들어옴에 따라 점차로 佛敎를 排斥하는 기운이 조성되고 그 排佛崇儒의 사상에 便乘하여 朝鮮朝 太祖가 權門勢家를 제거한 후 新王朝 樹立의 기반을 마련하였는데, 佛敎를 排斥한 이 純粹한 儒敎는 程朱學을 이념적 바탕으로 하면서도 아직 신진 사류를 형성하지는 못했다.³⁹⁾ 그러나 일면 人生과 宇宙의 근원을 形而上學的으로 해명하는 哲學的인 儒學이라고 할 수 있는 朱子學은 당시 佛敎에도 그리고 詞章·

37) 玄相允, 朝鮮儒學史(民衆書館, 1949) p. 60.

38) 梁大淵, 儒學入門, p. 286.

39) 成樂薰, 韓國儒敎思想史, 韓國文化史大系Ⅶ, 宗教哲學史, p. 925.

訓詁 중심의 儒學에도 만족할 수가 없었던 신진 士大夫들에게 있어서 정신적 支柱가 되기에 充分한 思想이었으며, 政治인 도덕으로서 君臣의 義를 강조하고 異端의 排斥에 날카로운 儒學이었다.⁴⁰⁾

草創期의 儒學은 幾多의 名匠 巨擘이 繼承하고 碩學 明哲이 厥起하여 百華, 紅葉을 다루는 듯 하였으니, 그 系譜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대개 安文成 裕는 白上黨 頤正과 禹易東 倬에게 전하고, 上黨은 李益齋 齊賢에게 益齋는 李牧隱 櫛에게, 牧隱은 權陽村 近과 卞春亭 季良에게 전하였으니, 이것이 麗鮮儒學의 源流가 된다.⁴¹⁾

朝鮮 前期에 들어와서 性理學은 官學派와 士林派로 大別된다. 前者는 儒學이 現實으로 정치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形而上學의인 政治哲學이 아니라도 가능하다고 여겨 經學은 물론 歷史學이나 文學 또는 각종 技術學도 동등하게 중요시하는 學風이며, 後者는 理想的인 政治哲學의 學風으로 士의 所業을 經學 즉 倫理 哲學에 局限시키고 각종 技術學의 雜學은 친시 排擊하는 學風이다. 麗末 鮮初의 鄭道傳, 趙浚, 權近 등 前者의 學派는 麗朝에 대해서는 逆臣이었던 관계로 더 이상 學統을 잇지 못하고, 다만 그 시대의 新王朝을 이끌어 가는 敎化의 구실을 하였거나 王室의 編纂 사업을 하는 데 그쳤다.⁴²⁾ 이에 反해 士林派 즉 正統派 性理學은 마음을 修養하고 몸을 닦은 碩學 明哲들이 그 系譜를 이어왔으니,⁴³⁾ 그 學統을 張志淵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圃隱은 우리 東方理學의 宗祖이니 宋儒인 程子·朱子の 學이 실로 이에서 시작된 것이다. 圃隱은 吉治隱再에게 전하고 治隱은 金江湖 叔滋에게 전하고, 江湖는 아들인 佔畢齋 宗直에게 전하고, 佔畢齋는 金寒暄堂 宏弼에게 전하고, 寒暄堂은 趙靜庵 光祖에게 전하였다. 이것은 圃隱 이후의 서로 계승하여 나간 理學의 嫡派이다.⁴⁴⁾

한편 士林系에 속하는 高峯 奇大升에 의하면, 韓國性理學의 學統은 禹倬·鄭夢周 이후에야 비로소 性理學이 있음을 알았고, 朝鮮 世宗朝에 이르러 禮樂 文物이 燦然히 세로와짐에 우리 東方의 學問을 相傳하게 되었다. 그것을 차례로 말하면, 夢周로 우리 東方 理學의 祖를 삼아 吉再가 夢周에게 배웠고, 金叔滋가 吉再에게 배웠고, 金宗直이 叔滋에게 배웠고, 金宏弼이 宗直에게 배웠고, 趙光祖가 宏弼에게 배움에 자연히 源流가 있게 되었다.⁴⁵⁾

여기서 初期 大家인 三峯과 陽村은 이 대열에 들지도 못하였다. 그 까닭은 士林系統

40) 鄭堯一, 朝鮮前期詩學, 韓國古典詩學史(弘盛社, 1981) p. 110.

41) 蓋安文成傳之白上黨禹易東 上黨傳之李益齋 益齋傳之李牧隱 牧隱傳之權陽村近卞春亭季良 此爲麗朝儒學之源流也(張志淵, 朝鮮儒教淵源, 卷一).

42) 鄭堯一, 前揭書, p. 113.

43) 韓永愚, 朝鮮前期의 社會思想, (春秋文庫), pp. 12~18.

44) 圃隱即吾東方理學之宗祖 而宋儒程朱子氏之學 實蓋膺於此也 圃隱傳之于吉治隱再 治隱傳之于金江湖叔滋江湖傳之于其子佔畢齋宗直 佔畢齋傳之于金寒暄堂宏弼 寒暄堂傳之于趙靜庵光祖 此圃隱以後理學之嫡派直承者也(張志淵, 前揭書, 卷一).

45) 奇大升, 高峯集, 論思錄.

의 학자들은 性理學의 淵源을 學問授受의 사실 여부나 학문 업적보다도 士大夫의 義理精神을 기준으로 하여 파악했기 때문이다.⁴⁶⁾ 이 學統觀이 실상 高峯뿐 아니라 退溪 栗谷을 비롯한 모든 士林派의 생각이며, 朝鮮朝 말기에 이르기까지⁴⁷⁾ 모든 性理學者들이 시인하고 信奉한 學統觀이다.

朝鮮朝 性理學은 宋學의 影響과 거듭되는 士禍의 影響으로 점차 隆盛 發展하여 仁·明 兩宗을 거쳐 穆陵 盛世에 이르러 徐敬德, 李彥迪, 李滉, 李珥, 曹植 등 탁월한 학자가 崛起함에 따라 朝鮮의 性理學은 이론적 확립을 더욱 굳건히 하게 되었다.⁴⁸⁾ 이렇게 性理學의 찬연한 시기에 태어난 寒岡은 21세 때 退溪 李滉의 師門을 찾았고, 3年 후 24歲 때 南冥 曹植의 師門을 찾아 弟子의 禮를 닦게 된 것은 後日 學問의 興隆이나 精神의 興隆으로 큰 意味를 갖는 일이다.

十六世紀 後半에 一代의 宗師인 退溪와 南冥이 嶺南 上·下道에서 講學의 場을 열고 있었던 것은 당시 士林界의 한 偉觀이었다.⁴⁹⁾ 震壇의 儒學은 前述한 바와 같이 圃隱 鄭夢周, 寒暄堂 金宏弼, 晦齋 李彥迪이 차례로 등장하여 우주의 본체와 심성에 대한 심오한 이치를 천명하고 나아가 이 나라 文物的 興衰을 피우게 되었는데 退溪에 이르러 비로소 그것이 집대성되고⁵⁰⁾ 嶺南學派의 形成을 보게 된 것이다. 그러나 退溪의 학문은 어떤 특정인의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바로 朱子를 私淑함으로써 大成的 경지에 이르렀다고 한다. 退溪는 朱子의 心法을 직접 체득하여 이어 받았던 것이고 다른 어떤 사람이 朱子와 退溪의 사이에 仲介者로 개재한 것은 아니다.⁵¹⁾

한편 南冥은 退溪와 같은 해(1501)에 태어나서, 退溪가 廟堂에 나아가 天下를 經綸하고 理論儒學을 展開한데 反해, 南冥은 일개 處士로 자처하면서 山間에 隱逸하여 오직 知行一致의 行動儒學을 主張하였다. 義를 보고 행하지 않는 僞善을 唾罵하고 眞正한 선비像을 知行一致에서 追求한 위대한 哲學者였으니, 石潭日記에 보면,

曹植은 세상을 도피하여 隱遁 독립해서 志行이 높고 결백하였으니 참으로 한 시대의 뛰어난 백성이다. 다만 그 논설 저작은 학문에 있어서 實見한 것이 없으며 상소한 것도 또한 세상을 경영하여 구제하는 계책은 아니었으니 비록 그 도를 세상에 행하여 보게 하였어도 반드시 능히 美治의 도리를 이루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절개를 온전히 하여 천 길의 절벽을 깎아 세운듯한 것으로 植과 같은 사람이 거의 없다.⁵²⁾

라고 하였다.

星湖 李滉은 그의 저서〈星湖僿說〉‘天地門’에서 白頭山脈과 南方의 地理를 論하면서

46) 尹絳亭, 朝鮮前期 性理學의 樣態, 玄岩社, 1980, p. 50. 參照.

47)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參照.

48) 玄相允, 前揭書, p. 61.

49) 李佑成, 寒岡全書, 解題.

50) 李佑成, 韓國 儒學史上 退溪學派의 形成과 그 展開, 韓國의 歷史像, (創作과 批評社, 1983), p. 88.

51) 李佑成, 前揭書, p. 88.

52) 曹植遜世獨立 志行峻潔 眞一代之逸民也 第其論著 則於學問無實見 所上章疏亦非經濟之策 雖使行于世 未必其能成治道也 然終始完節壁立千仞 如植者無幾云(張志淵, 前揭書, 卷一).

退溪의 道德의 깊고 넓음과 南冥의 氣節의 높음을 들어 嶺南 上·下道の 學風을 對照的으로 말하고,⁵³⁾ 다시 ‘東方人文’에서 東方의 人文을 論하여, 退溪에 依하여 上道는 仁을 爲主하고 南冥에 依하여 下道는 義를 爲主했는데 退溪의 儒化를 海濶에 비긴다면 南冥의 氣節은 山高에 견줄 만한 것이며 이에 이르러 우리 나라 儒敎的 文明은 그 頂點에 到達했다는 것이다.⁵⁴⁾

그리고 南冥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古文을 배웠으나 능히 이루지를 못하였고 退溪는 본래 古文이지만 성숙하였으니 비유하면 나는 ‘錦을 잴으나 한 필을 이루지 못하였고 退溪는 ‘絹⁵⁵⁾을 짜서 한 필을 이뤄 쓸 수 있는 것이 된 것이다.”⁵⁶⁾라고 한 것을 보면 學問의 깊이와 폭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嶺南 上·下道の 學을 退溪와 南冥을 通해 吸收하여 錦·絹 한 필을 짜낸 이가 바로 寒岡이다. 한번은 昭敬王이 退溪와 南冥에 대해 물었을 때 寒岡이 대답하기를

滉은 신조가 독실하고 공부가 純熟하며, 植은 초연 자득하여 독립 특행합니다.⁵⁷⁾

라고 하여 두 스승의 學問과 氣像의 長點과 特性을 소상히 파악하고 설명하였다.

이어 大學의 工程을 論하여,

先儒들이 天道·王道의 要點은 혼자 있을 때를 삼가하는 데 있다고 하였으니 帝王의 學問도 그 어느 것이든 혼자 있을 때를 삼가하는 데 달려 있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⁵⁸⁾

라고 하여 昭敬王은 그의 말을 옮겨 받아 들었다. 寒岡은 幼年時節부터 天資 豪邁하여 體質의으로는 南冥에 유사하여 南冥의 砥礪名行과 出處義理를 본받았지만, 學問의 態度나 修養에 있어서는 退溪의 仁을 따랐던 것 같다.⁵⁹⁾ 學識은 매우 깊고 넓어 宇宙間의 모든 일은 다 研究對象으로 삼았다. 그는 心學에 達通함은 물론⁶⁰⁾ 歷史·文學·地誌·醫學·兵法에 밝았으며, 특히 禮學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不許했다. 禮學이란 天理의 節文과 人事의 儀則을 이룬 것이니 사람의 言行을 天理自然의 理에 符合되게 하여 人生相互의 愛敬을 極盡히 하도록 하는 準則이다.⁶¹⁾ 이 當時 禮學이 번성하게 된 원인은 朝鮮社會가 종래의 法制面에서의 儒敎主義로부터 主知·思辨의이던 精神的인 面的 宋學으로 전환되어 온 추세와 家禮를 중시한 현실적인 四禮의 行用이 보편화된 데서 온 결과

53) 退溪生於太白之下 爲東方之儒宗 其流 深涵濃郁 文彩彪映 有洙泗之風焉 南冥生於頭流之下 爲東方氣節之最 其流 苦心力行 樂義輕生 利不能屈 害不能移 有特立之操焉 此嶺南上下道之別也 <李佑成, 寒岡解題引用>.

54) 聖朝建極 人文始闢 中世以後 退溪生於小白之下 南冥生於頭流之下 皆嶺南之地也 上道主仁 下道主義 儒化氣節 如海濶山高 於是乎 文明之極矣 <同上>.

55) 명주실로 전 비단.

56) 張志淵, 前揭書, 卷一.

57) 滉踐履篤實 工夫純熟 植超然自得 獨立特行 <許穆, 寒岡鄭先生墓誌銘, 寒岡先生全書下>.

58) 先儒言天德王道 其要在謹獨 帝王之學 亦無一不在謹獨 <許穆, 寒岡鄭先生墓誌銘, 全書下>.

59) 李佑成, 全書解題參照.

60) 肅宗實錄에는 寒岡을 心學의 祖宗으로 하고 있으며, 그의 心經發揮는 우리 나라 性理學의 정수이다.

61) 玄相允, 前揭書, p. 163.

이다.⁶²⁾

또, 그는 人物, 地理, 物産 方面에 學問의 관심을 표했으며, 시기적으로 이 때는 급변하는 사회변동으로 그 形式的・觀念的・排他的인 면에 反撥하는 후대의 實學精神에 관련될 만한 새로운 思潮가 隱然中에 胚胎되는 時期이기도 하였다.⁶³⁾ 따라서 이러한 각도에서 볼 때 그의 學問은 후일 星湖學團의 實學派에 영향을 미쳤다 할 수 있다. 嶺南學派의 脈을 이어 받은 寒岡은 全國에 걸쳐 眉叟 許穆, 東岳 李安訥, 茅溪 文緯, 畏齋 李厚慶, 桐溪 鄭蘊, 松庵 金沔, 樂齋 徐思遠, 朽淩 黃宗海, 大庵 朴慍 等⁶⁴⁾의 弟子를 길러냈고, 특히 嶺南 文士의 대부분이 그의 門徒들이며 그 數는 <檜淵及門諸賢錄>에 의하면 341人⁶⁵⁾에 달한다. 그런데 眉叟 許穆은 近畿出身으로 그가 退溪의 學, 嶺南의 學에 접한 것은 鄭寒岡을 스승으로 섬기면서부터였다. 그는 젊은 나이에 부친의 任地를 따라 高靈・居昌 등 嶺南 여러 고을에 왕래하면서 寒岡의 學德을 尊敬하여 23歲 때에 居昌에서 그의 종형 觀雪公과 함께 星州로 찾아가서 寒岡을 만났다. 그 당시 寒岡의 門下에는 많은 弟子들이 드나들었는데 寒岡은 이 近畿地方의 젊은 學徒를 눈여겨 보았고 뒤이어 곧 그에게 큰 촉망을 보냈다.⁶⁶⁾ 마침내 眉叟는 後日 寒岡의 學統을 近畿地方으로 가져가서 近畿學派의 開山鼻祖가 됨으로써 嶺南學派와 함께 退溪學派의 두 潮流를 이루게 되었다. 다만 星湖 李瀾은 늦게 태어나 친히 眉叟에게는 수업하지 못하고 父兄으로부터 전해 받음으로써 眉叟의 私淑弟子가 되었다. 이같은 사실은 樊巖 蔡濟恭이 撰한 星湖 李瀾의 墓碣銘에 잘 나타나 있다.

우리의 學問은 원래 學統・學脉이 있으니 退溪는 우리의 공자로서 그 道를 寒岡에게 전해주었고 寒岡은 그 道를 眉叟에게 전해주었는데, 星湖는 眉叟를 私淑한 분으로 眉叟를 배워서 위로 退溪의 學에 접하였다. 뒤의 學者들은 斯文의 嫡嫡相承함을 알아야 할 것이다.⁶⁷⁾

眉叟를 私淑한 星湖는 實學의 大家로서 18世紀前半 당시 농촌사회에서 광범히 몰락하는 小農民의 生活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土地制度 및 行政機構 기타 制度上的 改革에 치중하는 經世治用學派이다.⁶⁸⁾ 이 學派는 燕巖系列의 利用厚生學派와는 달리 그 사고가 復古的, 高踏的이었다. 그러나 이 星湖學派는 老少間의 사상적 대립으로 인하여 老成層의 穩健主義를 표방하는 順菴 安鼎福 中心의 星湖 右派와 이에 反해 急進主義를 표하는 鹿菴 權哲身 系列의 星湖 左派로 對立이 되었다. 다시 安順菴은 下廬 黃德吉에게 전하고 下廬는 性齋 許傳에게 전하여 그 脈을 잇고, 權鹿菴은 巽菴 丁若銓과 茶山 丁若鏞兄弟에게 그 學을 傳하게 되었다.⁶⁹⁾

62) 黃元九, 李朝禮學의 形成過程, 東亞細亞史研究(一潮閣, 1980), p. 53.

63) 樊榭學會, 韓國史, 近世後期編, p. 460.

64) 張志淵의 儒學淵源略譜에 依함.

65) 檜淵及門諸賢錄, 卷一 54人, 卷二 63人, 卷三 118人, 卷四 106人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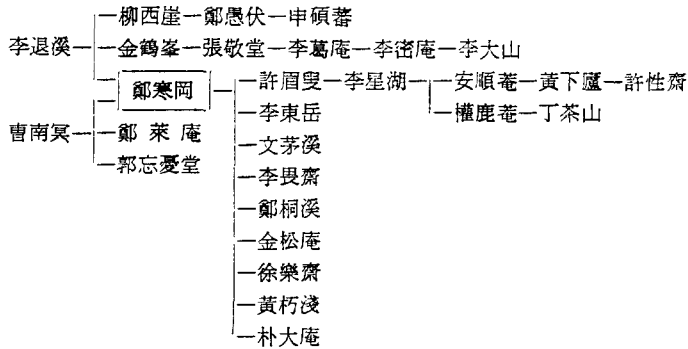
66) 李佑成, 眉叟記言, 解題.

67) 蔡濟恭, 樊巖集, 卷51.

68) 李佑成, 實學研究序說, 韓國의 歷史像, (創作과 批評社, 1983) p. 14 參照.

69) 李佑成, 韓國儒學史上 退溪學派의 形成과 展開, 前掲書, p. p. 89~90 參照.

이상에서 살펴본 것을 土臺로 寒岡의 學統을 그 學問의 授受關係에서 淵源圖를 作成하면 다음과 같다.



寒岡의 學統은 嶺南學派의 脈을 잇고 그것을 眉叟 許穆에게 傳함으로써 近畿學統 形成의 淵源이 되었다.

Ⅳ. 漢詩分析

1. 形 式

「寒岡先生文集 卷之一」에 실려 있는 漢詩 39首와 「寒岡先生續集 卷之一」에 전하는 漢詩 16首가 寒岡全書에 전하는 詩 전부이므로 이를 分析 對象으로 삼는다. 이처럼 寒岡의 詩는 얼마되지 않지만, 이들 作品을 漢詩 形式別, 文集別로 分類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漢 詩 形 式	作 品 名	出 典
1	五 言 律 詩	平海風月樓仰次先祖文簡公園齋先生韻	寒岡先生文集 卷之一
2	七 言 律 詩	晴暉堂偶吟	"
3	"	四仙亭仰次先祖文簡公韻	寒岡先生續集 卷之一
4	"	次金東岡會寧途中韻	"
5	"	挽安宜之	"
6	"	挽李元老	"
7	五 言 絕 句	夙夜齋望仰山	寒岡先生文集 卷之一
8	"	曉起偶吟	"
9	"	次李玉山韻	"
10	"	別金東岡朴大菴	"
11	"	自省	"
12	"	贈李謹思	寒岡先生續集 卷之一
13	"	偶吟	"
14	六 言 絕 句	春帖	寒岡先生文集 卷之一

	漢詩形式	作 品 名	出 典
15	七言絶句	武屹夜詠	寒岡先生文集 卷之一
16	"	甲申春帖	"
17	"	送金東岡歸京	寒岡先生續集 卷之一
18	"	始卜海亭示同來諸君子	寒岡先生文集 卷之一
19	"	戊午七月十二日酒席次門下諸生韻	"
20	"	題晴暉堂	"
21~22	"	昌山衙閣偶吟二首	"
23~24	"	次趙明府伯玉韻二首	"
25	"	題川谷書院誠正堂	"
26	"	以承旨入直次壁上同僚韻	"
27	"	偶吟	"
28	"	敷時	"
29	"	閱昌山舊蹟偶吟	"
30~39	"	仰和朱子武夷九曲詩韻十首	"
40	"	題檜淵草堂	"
41	"	題社倉新構	"
42	"	無題	"
43	"	次金陝川昌一韻	"
44	"	檜淵偶吟	"
45	"	贈別金東岡	寒岡先生續集 卷之一
46	"	次成川降仙樓韻	"
47	"	泛舟洛東江分韻萬頃蒼波欲暮天得波字	"
48	"	偶吟	"
49	"	自省	"
50~51	"	無題二首	"
52	"	偶吟	"
53	"	挽李剛甫	"
54	排 律	玉斗詩	寒岡先生文集 卷之一
55	"	醉生夢死嘆	"

위의 圖式에서 보인 바와 같이 寒岡의 詩 55首를 形式에 따라 分類해 五言律詩 1首, 七言律詩 5首, 五言絶句 7首, 六言絶句 1首, 七言絶句 39首, 排律 2首로 分類 되었으며, 그 가운데서도 七言絶句가 전체의 71%를 차지하고 있음이 두드러진 현상이다.

2. 內 容

宣祖朝는 朱子學이 전성기를 맞이하는 분수령이기도 하지만,⁷⁰⁾ 임진왜란 등 급변하는 사회변동으로 말미암아 朱子學의 형식적, 관념적, 배타적인 면에 반발하는 후대의 實學精神에 관련될 만한 새로운 사조가 은연중 배태되는 시기이기도 하였다.⁷¹⁾

朱子學者들이 그 효용론적 입장에서는 ‘道는 文의 근본이고 文은 道の 지엽이다. 文

70) 玄相允：前揭書，p. 62.

71) 震檀學會：韓國史，近世後期篇，p. 460.

에서 發하는 것은 모두 道이어야만 한다. 三代聖賢의 문장은 모두 이런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文은 이 道를 익히는 것이다.’⁷²⁾라 하여 文은 ‘載道之器’ 文은 ‘貫道之器’로 인식하면서 문학의 存在는 인정하되 예술로서의 독립가치는 인정하지 않고, 다만 文은 道를 전파하는 매개수단, 즉 道의 부속물로 餘技라는 소극적 태도로 인식하였다.⁷³⁾

그러나 임진·병자란을 겪은 후 ‘學問은 실제 사회에 유용한 것이어야 한다’는 실학 정신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의미로 볼 때 寒岡은 한국 性理學精神이 실학 정신을 배태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으니, 그의 학문적 사상의 요체는 全體大用이었다. 이는 李滉의 知行並進이나 柳成龍의 體用兼全의 사상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개인문제에 국한하던 인격완성을 위한 窮理實踐이요, 德治의 단계에 오르면 應用教時로 나타났다. 또한 寒岡 學問의 위대성은 그의 宏博性和 응용구시적 경향이 그의 수제자 許穆을 통하여 近畿學統으로 이어져 실학의 연원을 이룩한 데 있는 것이다.

母自欺 석자를 平生 信條로 삼아 自身의 人格을 陶冶함에 誠實을 다하였던 寒岡은 대자연의 絶景속에서 높은 學問과 德行의 경지를 이룩하였으나 벼슬길 보다는 草野에 뜻을 더욱 굳게 하여 後進 教育에 정성을 쏟으며 一生을 지냈다. 그의 天性은 高尚하고 光明正大하였으며, 理想은 遠大하고 局量은 廣闊하였고, 그의 學識은 精密하고 純粹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포부가 매우 커서, 우주간의 모든 일을 다 研究 對象으로 삼았다. 性理學에 달통함은 물론 算數·兵法·醫藥·風水에 모두 밝았으며 禮學에 있어서는 他의 추종을 불허했다.

이러한 그의 生涯가 詩作品 속에 깊이 스며들었으니, 단순한 吟風弄月의 餘技文學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비록 作品 수는 적지만 그의 全 生涯를 통해 一貫된 思想과 人生觀이 珠玉처럼 맺어진 作品들인 것이다.

우선, 그의 作品들을 內容別로 分類해 보면,

항상 겸허한 자세로 몸가짐을 조심하는 修養人으로서, 오직 學問과 眞理 探究에만 정진하여 자신의 浩然之氣와 德을 키우는 데 勤勉하고 敬虔한 生活相이 나타나 있는 作品群을 ‘學問修德’이라 하여 포괄적으로 묶어 두었으며,

邪心없는 自然을 대상으로 人間의 부귀영화를 멀리하고, 自然의 깊은 신비와 무한한 生命力 속에서 오묘한 學問의 世界를 깨달으며, 高潔한 선비 정신을 꾸밈없이 나타난 作品群을 ‘江湖述志’로 묶어 보았다.

江湖述志 외에도 自然과의 交遊는 全作品을 통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으니, 벼슬길에 나아가서도 초연한 선비의 자세로 學을 일으키고 어진 牧民官의 功德을 남겨, 백성들이 그를 기리며 사모했으나 그의 뜻은 한결같이 벼슬을 사양하고 鄉里의 自然으로 돌

72) 道者文之根本, 文者道之枝葉, 所以發之於文, 皆道也, 三代聖賢文章, 皆從此心寫出, 文便是道 (朱熹: 朱子語類, 韓國古典詩學史, 弘盛社, 1979, p. 238. 再引用).

73) 崔雄 등: 韓國古典詩學史, 弘盛社, 1979, p. 239.

아가서 勉學精進하겠다는 意志에 차 있었다. 이러한 作品群에서 ‘致仕歸田’의 심정을 찾아 볼 수 있으며, 後進을 教育하며 江湖에서 志操를 지키어 淸貧한 선비답게 살겠다는 淸貧無欲의 生活相에서 ‘節義淸貧’의 정신을 찾아볼 수 있다.

寒岡이 살던 李朝 中期인 宣祖朝는 임진란 등 國難을 당하여 어지러운 때이어서, 그는 淸貧한 선비의 몸으로 忠誠을 다하여 곤경에 빠진 조국을 위해 心血을 기울여 왔으니, 오로지 學問에 몰두하던 草野의 선비였으나 조국의 위기는 그에게 깊은 ‘憂國歎時’의 정감을 불러일으켰다.

自然의 惠澤이 萬物에 고루 미치듯이 그의 溫和한 性品은 天理에 따르듯 私欲을 버린 마음으로 對人關係에서의 情理를 중히 여겨 왔으니, 寒岡의 각별한 정이 깊이 서려 있는 作品群을 ‘惜別追慕’의 情緒로 묶어 보았다.

위와 같이 大別한 후 좀 더 깊이 寒岡의 詩世界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1) 學問修德

寒岡은 退溪 李滉을 좇아서 仁을 위주로 하는 嶺南左道の「退溪學」을 전수받고, 南冥 曹植의 門下에서 師事하여 出處去就의 義 中心의 「南冥精神」인 嶺南右道の 學을 이어받았다. 學問과 修德의 意志가 남달리 강했던 寒岡은 이들을 단순히 이어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두 學脈을 통합성취하고 새로운 그의 학통을 세웠으니, 이것이 近畿地方으로 전파되어 近畿學으로 발전되었다.

그의 깊고 넓은 학문은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으니, 열 살 안팎 때의 詩〈自省〉⁷⁴⁾에서

大丈夫心事 白日與青天
磊落人皆見 光芒正凜然

대장부의 마음은
밝은 해와 푸른 하늘 같도다.
우뚝하고 깨끗함을 사람마다 다 볼지니
찬란한 그 모습 바로 넘칠하도다.

라고 하여 어릴 때부터 抱負와 氣像이 남달리 뛰어났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 큰 抱負와 氣像을 평생동안 貫流했으니, 훗날 그는 “타고난 性品이 높고 밝을 뿐만 아니라 識見과 度量이 넓고 깊어서 純粹하기가 精金과 같다”는 칭을 받았다. 그의 천재적인 文學의 재능이 光明한 마음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짐작케 해 주는 詩다.

그의 〈偶吟〉⁷⁵⁾ 이란 詩를 보면,

春山如錦水如藍 風詠冠童共數三

74) 全書 上, 文集 卷之一, p. 14.

75) 前掲書, p. 15.

若會當時夫子歎 唐虞氣象許君參

봄산은 비단같고 물은 쪽빛같은데
봄을 맞아 노니는 어른과 아이들
공자님이 탄식하던 그 때를 만났더라면
요순의 기상이라 허락할 것을.

人間의 人性은 學問을 함으로써 닦아질 수 있다는 信念과 學問에의 뜻을 보여 주는 作品이다. 學의 世界에 전념하여 孔子의 높은 理念을 깨우친다면 人間社會는 언제까지나 저 비단결 같은 봄빛처럼 밝아질 것이라는 바램이 들어 있다. 寒岡은 열두 살 때부터 孔子의 畫像을 벽에 걸어 놓고 지극한 정성으로 절을 하며 尊賢의 가르침을 본받고자 앞장서 실천한 분이였다.

이와 같은 情緒는 또 다른 〈偶吟〉⁷⁶⁾에 잘 나타나 있는데,

沂水冠童六七偕⁷⁷⁾ 聖師猶樂遠方來⁷⁸⁾
從來所得宜人共 滿壑風光莫自猜

습점은 沂水에서 몇몇 冠童과 같이 하였고
공자님도 친구가 멀리서 오를 좋아했는데
지난 날 얻은 바를 남과 같이 즐기려니
구름에 가득찬 경치를 시기하지 말지라.

은근함 속에 好學하는 生活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 孔子는 學問, 禮, 仁, 政治의 終局的 目的은 “老者安之, 朋友信之, 少者懷之”⁷⁹⁾로 서로 평안과 신의와 사랑으로 계층 성장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隱者和 같이 悠悠自適 할 수 있기를 바랐다. 이 詩에 그려진 風光이 孔子의 경지까지 넘나들고, 氣象이 호기로와 心像이 오히려 한 폭의 心畫와 같다. 詩는 性·情의 表現이라는 것은 主知的 사실이다. “詩者 志之所之也 在心爲志 發言爲詩 情動於中 而形於言”⁸⁰⁾이라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

그의 詩 〈甲申春帖〉⁸¹⁾에서

陽回地上天和發 何物人間不共春
猶幸病夫無外事 閉門終日養吾真

양기가 땅위에 돌아오니 하늘의 화기가 나타나고
사람과 만물이 모두 봄을 맞이하였네.
내 다행히 病夫되어 세상 일에 아무 시름없으니

76) 全書 上, 續集 卷之一, p. 275.

77) 論語, 先進篇, 공자의 제자 습점이 ‘莫春者 春服既成 冠者五六人 童子六七人 浴乎沂 風乎舞雩 詠而歸’라 한 고사.

78) 論語, 學而篇, ‘有朋 自遠方來 不亦樂乎’.

79) 論語, 公冶長篇.

80) 子夏: 詩經大序 ‘詩란 마음이 흘러가는 바를 적은 것이다. 마음 속에 있으면 志라고 하고 말로 표현하면 시가 된다. 情이 마음 속에서 움직일 때, 시인은 그것을 말로 표현한다.’

81) 全書 上, 文集 卷一 p. 15.

문을 달고 종일토록 나의 참 뜻을 가구리라.

隱逸의 生活 속에서 참된 眞理의 깨우침에 대한 意志를 밝히고 있다. ‘뜻을 바르게 들 것이며, 利를 도모하는 데에 두지 않는다. 반드시 道를 밝히는 데 힘쓸 것이며 功을 꾀하진 않는다’는 德目을 선비의 가야할 길로 철저히 지켜 나갔다.

이러한 뜻은 <贈李謹思>⁸²⁾에서도 잘 전달되고 있다.

萬事浮雲似 晴空我本然
身心同一養 思慮莫牽連

만사가 뜬 구름 같고
갠 하늘이 내 본뜻일세
몸과 마음을 함께 길러서
잡된 생각에 끌리지 말지라.

聖賢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지키는 일은 온 세상 만물 위에 자리하여 超然하나, 인간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나 재물에 대한 욕심은 뜬구름 같다 하였으니, 一身의 榮達에서 떠나 草野에 隱居한 큰 뜻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당시 조정에서는 당파싸움에 웬만큼 志操있는 선비들도 휩싸여 헤어지지 못하고 말았었다. 그래서 뜻있는 선비들은 草野에 隱居하며 학문과 수양으로 벗을 삼았다.

寒岡은 일찍이 15歲때 지은 <醉生夢死嘆>⁸³⁾에서도

受命當年得其秀 形肖上下人其名
一箇靈臺主萬善 妙用觸處知虛靈
通神知化立人極 踐形然後能順寧
如何放倒一種人 迷老醉夢終不醒
朝晝所爲致怙亡 可憐生意無由萌
貪殘暴慢賊四端 食色臭味淪七情
良心發處私已動 正念起時邪先生
堪嗟十寒無一曝 醉邪夢邪長昏冥
三綱既淪九法斁 優優百年甘蠶盲
自將皇天付界身 穽穽迷路空墜坑
雖然一脈尚碩果 生意所以根於貞
喚醒主人豈無道 寸膠可使黃流清
三軍旗脚勿字上 天君正理要明誠
敬義夾持動靜間 下梢遂使明德明
依然一朝透覺關 得見翁孺與弟兄
却怕天日已遲暮 俯仰獨立愁前程

매어남 얻어 생명을 받으니

82) 全書 上, 續集 卷之一, p. 275.

83) 全書 上, 文集 卷之一, p. 16.

형용은 천지에서 본뒀고 이름은 사람이더라.
 靈臺 한개로써 온갖 착한 것 맡아서
 모한 이치 虛靈으로 알아내어
 신기한 조화 인간의 진리
 옳은 일 실천에 옮겨야지
 어찌타 헛넘어가는 일종의 인간들
 아득히 늙어가며 취한 꿈속에서 깨어나지 못하네.
 아침과 낮에 하는 것 양심을 잃어버려
 가련하다 옳은 마음 움돋지 못해,
 탄내고 모질고 오만스레 四端을 해치고
 食色臭味로 七情을 빠뜨리네.
 양심이 피어나자 私心이 벌써 움직이고
 바른 생각 일어날 때 사투한 마음 먼저 나비.
 열흘 추위에 하루 별도 없음을 슬퍼하노니.
 취한듯 꿈속인듯 길이길이 캄캄해
 三綱은 무너지고 九法도 막혔도다.
 優優한 한평생 귀덕고 눈 어두워
 옥황님 내려주신 이 몸을 가지고도
 봉사 길 가듯 캄캄한 어둠길 빈 구렁텅에 빠지네.
 꼭대기에 달린 碩果처럼 일찍만 남아
 곳곳한 생기만 붙었네.
 제 정신 불러 깨울 그 길 없으랴!
 한치되는 아교풀 찬하들 탐게 하라!
 3군을 호령하는 勿字旗에
 天君의 正理는 明과 誠이 필요하네.
 動하거나 靜하거나 敬과 義로 맞들어서
 마지막에 明德을 밝히게 되리.
 하루 아침 판문을 열어제쳐
 부모형제 다 보겠네.
 두려울사 하늘 햇빛 어느덧 저물어
 내려보고 우리리 보아 외로이 서서 앞길을 걱정하네.

라 하여 天理를 깨우치고 人間의 性情을 바로 잡아, 明德을 밝히는 바른 길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意志를 밝힌 글을 썼다. 功名 出世보다는 평범한 自然人으로서의 田園生活을 더욱 希求해 왔던 寒岡은 學問에 對한 誠心이 嚴함과 恭敬함에 있다고 믿고 힘써 실천해 왔지만, 스스로 만족할 수는 없었다.

그는 〈偶吟〉⁽⁸⁴⁾에서

期許平生古聖賢 此心昭若日中天
 如何昏質兼憂病 虛負今將四十年

84) 全書 上. 續集 卷之一, p. 275.

옛 성현의 경지를 평생토록 기약하고
이 다음 대낮처럼 밝아 있건만,
어거하랴! 혼미한 바탕에 병근심까지 겹쳐서
어느덧 헛되이 사십 년을 보냈는가.

회한과 自省의 詩다. 平生 옛 성현을 본받아 學德을 닦아왔는데 不惑의 나이에 다시 한번 人生을 되돌아보고 自省할 기회를 갖는다. 이리하여 詩〈自省〉⁸⁵⁾에서는 반성과 學問에 대한 意志가 더욱 깊어진다.

每恨悠悠過一生 晨窓獨起感懷長
昭昭聖訓皆吾戒 計自如今立脚剛

한스렵구나! 이럭저럭 보낸 일생
새벽창에 홀로 일어나니 감회도 길고 길어
밝고 밝은 성인의 말씀 다 나를 훈계하니
이제부터 스스로 뜻을 세워 굳세게 노력하리.

寒岡의 詩作品은 生活과 流離된 空虛한 美文의 나열이 아니며 불필요한 과장도 없는 진실, 소박한 표현으로 된 작품들이기에 그의 뜻이 더욱 감동적으로 전달된다. 깊은 회한을 딛고 일어나 다시 聖賢의 길로 들어서서 굳세게 노력하겠다는 意志가 들어 있음을 본다. 寒岡시대는 한국 성리학이 결실되던 때이며 그는 이조 유학사에 빛나는 인물이었다. 그의 詩〈始卜海亭示同來諸君子〉⁸⁶⁾에서 보면,

我欲爲亭近海灣 坐中誰作蔡西山
絕橋梅筠須早植 莫教風雨六年間

내가 정자를 바닷가에 짓고자 하거늘
이 가운데 누가 채서산⁸⁷⁾이 되겠는가.
치자와 감귤, 매화와 대나무를 일찍이 심으려 하노니
바람 비 육 년 동안 내리지 마오시라.

卜海亭을 지은 뜻이 講學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당시 學問이 朱子學에 근본을 둔 것이기에 朱子의 경지를 理想으로 삼아 넘나들고 있다. 여기서 梔·橘·梅·筠은 自然 그대로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당시 寒岡이 아끼던 제자들을 비유한다고도 볼 수 있으니, 이들이 修學하는 동안에 큰 시련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표현된 作品이다.

(2) 江湖述志

寒岡의 淡泊한 生活相은 그의 自然觀에서 엿볼 수 있다. 그는 江湖에 묻혀 스스로의 人格을 陶冶하고 學問의 眞髓를 추구하여 고결한 선비의 氣品을 지니고 있었다.

85) 前掲書, p. 275.

86) 全書 上, 文集 卷之一, p. 14.

87) 朱子보다 나이 많은 친구로 朱子의 으뜸가는 제자.

江湖란 江과 湖水가 對等한 意味로 짜여진 말로 쓰이기도 하고, 隱者나 詩人墨客들이 어지러운 俗世를 떠나 自然에 묻혀 생활하던 곳을 말하기도 하며, 또 朝廷에 대한 시골의 뜻으로도 쓰인다.⁸⁸⁾

이들 대부분 江湖를 對象으로 한 作品들은 閑暇로운 情을 노래하기 마련인데, 이에는 官職을 내놓고 田園으로 돌아가겠다는 致仕歸田의인 詩와 困窮하게 살면서도 天道를 지키겠다는 安貧樂道の인 詩와 세상을 避하여 山林에 숨어사는 것을 노래한 隱逸處士의인 詩⁸⁹⁾로 크게 나눌 수 있다. 寒岡의 詩는 이 부분에 해당하는 詩가 全作品 가운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의 生涯와 비추어 볼 때 江湖生活에 대한 憧憬의 詩情을 抱懷한 處士의인 詩나 致仕歸田의인 것과 安貧樂道の인 詩가 다 나름대로 뚜렷한 主題意識을 가진 것들이기에 이들을 각각 하나의 항목으로 독립시켜 다음에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自然을 主對象으로 한 作品群을 江湖述志라 함은, 寒岡이 江湖生活을 憧憬한 원인이 단순히 외부적 속박에서 벗어나고자 함이나 山林泉石에 대한 愛情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이 放縱飄逸한 吟風弄月의 生活과는 전혀 다른 求道와 率身의 生活인 점과, 그 뜻을 볼 수 있는 作品들이기 때문이다.

金台俊은 “勿論 隱遁의 慣習은 燕山四年以來 明宗間의 遺逸만 불지라도 成守琛, 李希顔, 曹植, 成悌元, 趙昱, 李恒, 成運, 韓脩, 林薰, 南彥經, 金範, 鄭璣·鄭磻 兄弟 등이 있다”⁹⁰⁾고 列擧하며 當時의 時代相을 代辯하고 있다. 또한 “四次의 士禍·四色의 黨爭, 이런 상황 속에 百姓이 安堵할 수 없고 더욱 東方 朱子學의 最高權威인 李退溪가 官을 버리고 山林에 伏居하야 힘을 哲學的 思索에 기울이고, 맛을 道學的 趣味에 붙여 理氣의 論을 往復하다가는 때로 歷史의 事物을 말하며 或은 花鳥風月과 高山流水를 吟咏하기로 세월을 보내는 風習이 열렸다”⁹¹⁾고 했다. 寒岡은 退溪에게서 知行一致의 思想을 전수받고, 南冥에게서는 出處의 절도, 義理, 孤高한 氣概와 節操를 배웠다. 이런 환경 속에서 그는 學問의 본바탕이 어디에 있었던가를 일찌기 깨달았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을 內容別로 크게 나누어 보면, 自然을 通해 오묘한 真理의 세계와 自然의 무한한 생명력 속에서의 깊은 신비를 깨우치는 情緒를 노래한 作品群과, 다른 하나는 오로지 自然이 叙述 대상이 되고 자연과 情談을 나누며 자연 경치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作品群으로 나눌 수 있다.

寒岡은 寒岡臺와 檜淵에 隱居하면서 自然과 情談을 나누었으니, 그의 〈檜淵偶吟〉⁹²⁾을 보면,

88) 辭源(正續編合訂本) 已集, p. 839. 〈江湖, (史記)范蠡乘扁舟浮於江湖(唐書)陸龜蒙 自稱江湖山人, 按江湖事爲隱者所稱如云身在江湖 心在魏闕是也, 世俗轉爲浪跡四方之語 且以之稱 虛浮不可信之人矣〉.

89) 徐元變, 歌辭文學에 나타난 江湖閑情性(慶北大學校 東洋文化研究 第9輯 1982), p. 30.

90) 金台俊, 朝鮮漢文學史(朝鮮語文學會, 1931) p. 134.

91) 前掲書, pp. 133~134.

92) 全書 上, 文集 卷之一, p. 16.

伽川於我有深緣 占得寒岡又檜淵
白石清川終日翫 世間何事入丹田

가천은 나에게 인연 깊은 곳
한강과 회연이 있도다.
흰 바위와 맑은 시내 온종일 구경하니
세상 무엇인들 마음 속에 들어오리.

죽이 돌아 흐르는 大伽川의 절경을 사랑하면서 스스로의 人格을 陶冶하며, 自然과 친숙하고 마침내는 同化되어 自然 속에서 포착된 映像을 達觀의 경지에까지 끌어 올리고 있다. 시대에 따라 비평의 각도는 다르겠지만, 조선조 名賢들의 생애는 人格完成, 道德社會 具現, 淸貧, 志操, 自然과의 융합이었다. 寒岡은 이 모두를 구비한 大賢이었다.

自然과 人間의 同一性, 地上에 仙景이 존재한다고 實在하라고 기원하는 그 求道의 內面性은 소박의 美學이면서 도피의 형이상학적 구조임에 틀림이 없고, 白衣의 소망과 本能을 독백한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 애호 사상은 白衣의 신앙과 理想世界를 구현시킬 수 있는 彼岸으로 노출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그의 思想은 〈次成川降仙樓韻〉⁹³⁾에서

臨瀛會訪舊仙區 今日雲耕到此州
獨倚欄干仍獨睡 任教人道降仙樓
경포호 다다라 신선의 곳을 찾았더니
오늘에야 구름타고 이곳에 이르렀도다.
난간에 기대어 하울로 조니
사람마다 강선루라 일컫게 하도다.

자신을 직접 仙人에 비유하여 환상적으로 노래한 것인데, 여기서는 現實을 도피하여 仙境을 찾았다거나 하는 것이 問題가 아니라, 現世에 대한 관심이나 名利에 대한 戀戀한 慾望을 벗어나 스스로의 高踏的 隱逸을 추구한 심정을 볼 수 있음에 특색이 있다.

이러한 隱逸的 自然愛好思想은 虛靜自守하고 卑弱自恃하는 無爲自然을 理想으로 하는 道家思想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니, 朝鮮朝는 유교를 國是로 삼고 있으나 文客들은 老·莊을 비롯한 道家諸書를 탐독하였다. 그것은 “業文章者 喜讀老莊諸書 其氣質過高者 又多轉而求道於釋氏之門 唐宋諸賢是也…… 其次爲鰲城月沙二公 雖習文章讀老莊書 而不受其毒也”⁹⁴⁾라 하여 당시에 道家書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寒岡의 〈晴暉堂偶吟〉⁹⁵⁾을 보면

倚軒嘯傲半褰衣 正是牛羊日夕歸
階上踈篁新葉密 澗邊叢柳舊枝稀
魚于淵底無心躍 鳶向天邊得意飛

93) 全書 上, 續集 卷之一, p. 275.

94) 「月沙集」 卷七.

95) 全書 上, 文集 卷之一, p. 16.

萬事此時都莫說 惟思陶子願無違

난간에 기대앉아 휘파람 불고 옷을 반쯤 걸으니
저녁이 되어 소와 염소가 돌아올 때로구나!
섬돌 위 성근 대는 새 잎 돋아 뻗뻗하고
시냇가의 버드나무 묵은 가지 드물드다.
못에는 고기들이 무심히 뛰놀고
하늘에는 소리개를 흥겹게 날아다니네.
번거로운 세상일을 말하지 말라.
도연경처럼 天命대로 살길 바라네.

田園生活에 깊이 심취하여 山水 自然에 소요하는 超世的 隱逸의 生活을 表現한 詩다. 섬돌 위에 이제 새로이 피어나는 대잎은 세속에 얽매임 없이 사는 寒岡의 節操를, 시냇가에 휘늘어진 楊柳에서는 스치는 바람결처럼 부드러운 德風을 느끼게 한다. 못의 고기처럼, 하늘의 소리개처럼 구속 없는 자유정신으로 큰 포부를 키워가는 것이다.

이처럼 번거로운 세상에의 집착을 떠나 江湖之樂을 노래하고 있는데, 이러한 평화로움은 ‘舍之則藏’의 도피적 은둔생활이 아니라, 市井을 떠난 田園, 江湖生活을 즐기고 自然을 玩賞, 謳歌하는 道家의인 超世的 隱遁生活인 것이다. 자신의 인생 경험을 통하여 ‘자신 본연의 自我에 귀환하라’ ‘진원으로 돌아가라’는 敎訓을 얻어 田園生活을 찾아 유토피아를 꿈꾼 陶淵明처럼 전원 속에서 자유인이고 싶은 심정인 것이다. 寒岡의 作品에 이러한 道家的인 경향이 나타난 것은 그가 이에 심취한 것이기보다는 일반적으로 唐宋文學을 숭상해 오던 朝鮮朝 學者들의 作品에서 은연중 영향을 미친 道家思想의 일면으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題晴暉堂>⁹⁶⁾을 보면,

一宿華堂意欲驕 更逢佳雨使崇朝
須臾日出雲收盡 綠樹晴暉映小橋

화려한 집에서 자고나니 생각은 만족한데〔우쭐한데〕
다시 좋은 비를 만났으나 아침이 못되어 개도다.
잠깐 사이에 해는 솟고 구름이 걷히는데,
푸른 나무, 밝은 햇빛 조그마한 다리에 비치도다.

물기 머금은 주위 경치가 햇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한 폭의 風景畵다. 含蓄性 있고 叙景의인 描寫가 斬新하다. 이러한 모습에서 寒岡이 求한 文學的 世界는 詩를 통하여 修道한다는 文以載道에 通하고 있으며 無爲自然을 통한 禪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自然을 對象으로 뜻을 펴고 있는 作品으로는 <曉起偶吟>⁹⁷⁾에서

96) 前揭書, p. 14.

97) 前揭書, p. 14.

夜宿松間屋 晨興水上軒
 濤聲前後壯 時向靜中聞

밤에는 소나무 사이 외판집에서 자고
 새벽에는 물위의 헌함에서 일어나네.
 물결소리 앞뒤에 요란하니,
 때때로 고요한 가운데서 들겠노라.

隱遁之士의 生理는 名利를 버리고 살아가면서 ‘樂亦在其中’의 人生觀을 굳히고 있으니, 무한한 自然 속에서 誠實한 자세로 수양해 나가는 自己의 所信을 소박하게 吐露한 詩다. 자신의 思想과 인생관이 진실·소박하게 표현된 것이 寒岡文學作品의 한 특색이다.

그의 詩 〈泛舟洛東江分韻萬頃蒼波欲暮天得波字〉⁹⁸⁾를 보면

平生何事最爲多 今日船遊亦可歌
 邂逅良朋仍共醉 斜陽倒影照平波
 평생에 무슨 일이 가장 좋았던가?
 오늘의 뱃놀이도 노래가 절로 나네.
 좋은 벗을 만나 함께 취하니,
 지는 햇빛은 고요한 물결에 거꾸로 비치네.

배를 타며 自然을 즐기는 悠悠自適한 風流를 볼 수 있다. 江湖의 自然 속에서 벗들과 私心 없이 閑遊하는 모습에서는 원단하게 형성된 人生觀이 自然스럽게 作品에 反映된 것을 볼 수 있다.

그의 〈平海風月樓仰次先祖文簡公圓齊先生韻〉⁹⁹⁾에서

古樓名風月 其上鳳樓亭
 嫩柳浮金色 疎筠奏玉聲
 夜憐新月白 朝挹遠山青
 先祖曾遊地 如陪杖履行
 옛 누각의 이름이 풍월인데
 그 위에 봉서정이 있구나.
 부드러운 버들은 황금빛을 띄우고
 성근 대나무에서는 맑은 바람소리 나네.
 밤에는 새로 뜬 달이 좋고
 아침에는 먼 산의 푸름을 바라보네.
 선조께서 일찌기 노니시던 곳
 마키 옆에서 피신 것 같구나.

自然에 對한 깊은 情趣는 맑은 叙景과 함께 그의 돈후한 人品을 보여준다. 儒敎에서

98) 全書 上, 續集 卷之一, p. 275.

99) 全書 上, 文集 卷之一, p. 14.

는 人間이 실천해야 할 最高의 道德으로 孝를 강조하여 왔다. 寒岡은 우리 나라 心學의 원천이요 상징으로, 心經學風의 전수자이며 禮學의 으뜸이다. ‘人心惟危 道心惟微 唯精唯一 允執厥中’이라 하며, ‘人性과 天命을 닦은 후의 실행을 주장하고, 敬義를 신조로 하여 체험하고 실행하라’는 南冥 學問의 목표를 이어받았다. 寒岡은 蒼坪山 先隴 西麓에 있는 寒岡[산이름]에 松楸[조상의 무덤]를 보호하기 위하여 寒岡精舍를 지어 後進들을 가르치며 知行並進할 것을 敎導하기도 했다. 自然을 통해 수양한 그의 탁월한 人品은 글 속에 스며들었고, 고매한 人品과 孝心은 先祖께서 노닐던 곳에서 그들의 훈향을 듣는 것이다.

그는 〈四仙亭仰次先祖文簡公韻〉¹⁰⁰⁾에서

海也人知集大成 一湖誰認聖之情
靑山凝寂心如靜 白水涵虛德似明
雨後秋容眞玉色 馬前沙響是金聲
古亭獨坐忘機處 俯仰瞻聆揔性情

바다는 웅당 사람마다 집대성한 줄 알지마는
한 호수로써 그 누가 맑은 성인의 덕을 알아내랴.
푸른 청산은 적적히 엉키어져 마음도 고요해진 듯.
흰 물은 빈 듯이 담기어 있어 덕이 밝은 것과 같구나.
비 온 뒤의 가을 풍경은 참으로 옥색이더라.
말[馬] 앞에 모래 소리 울림이야 바로 가을소리(金聲)로구나.
옛 정자 하울로 앉아 機心[기회를 보고 움직이는 마음]을 잊어버린 자리에
쳐다보고 내려봄에 모두 性과 情일테라.

自然의 영원성과 위력, 大自然의 참된 모습이야말로 바로 人間의 참된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려주는 것이다. 琢磨된 自然의 모습을 닮아야 할 人格의 完成, 이런 것이 절경 속에서 強調되어 있다. 마치 自然의 교훈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寒岡의 숨소리를 듣는 듯하다. 先祖 文簡公을 追慕하는 마음으로 높은 德을 기리며 찾아드는 발길은 一湖의 聖之情처럼 맑아져 一心으로 性情의 世界를 一喝하는 것이다. 現代를 사는 우리들에게 自然이 큰 敎訓이 되고 關心事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다.

寒岡은 61세 되던 해[宣祖 36年]에 寒岡 북쪽에 夙夜齋를 짓고 제자들을 가르쳤다.

이때 그는 〈夙夜齋望仰山〉¹⁰¹⁾에서

未出全身面 微呈一角奇
方知造化意 不欲露天機

전경은 보이지 않고
기이한 봉우리만 희미하게 드러나네.
알겠노라, 조화의 뜻

100) 全書 上, 續集 卷之一, p. 275.

101) 全書 上, 文集 卷之一, p. 14.

天機[하늘의 뜻]를 드러내지 않으려나보다.

기이한 伽倻山 봉우리는 自然이 깊이 간직한 오묘한 眞理의 本體의 일부다. 그 봉우리가 최미하게 드러남으로써 現實의 人間的 存在로서는 도달하기 어려운 지극한 境地를 간직한 채 造化의 오묘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하여 自然과의 만남, 즉 物我一體의 調和를 향한 끊임없는 求道的 姿勢를 受容해 가고 있는 것이다.

寒岡은 武屹 棲雲庵에서 門徒 70餘人과 더불어 講學의 生活을 할 때, 중국 朱熹의 武夷九曲을 본받아 大伽川 鳳飛岩에서부터 시작하여 修道山 滿月潭 龍湫에 이르기까지 이름하여 ‘武屹九曲’을 探勝하고 그 風景을 咏頌하였으니, 그의 詩〈仰和朱子武夷九曲詩韻十首〉¹⁰²⁾를 보면,

天下山誰最著靈 人間無似此幽清
紫陽況復曾棲息 萬古長流道德聲

천하의 산중에 어느 것이 가장 신령스러울까?
인간 세상에는 이처럼 깊고 맑은 곳은 없도다.
자양[朱子가 거주하던 곳]이 일찍이 깃들었던 곳
만고에 길이 흐른 도덕의 소리여!

大自然 속에서의 講學의 生活이 朱子의 경지까지 넘나들고 있으며

一曲灘頭泛釣船 風絲線繞夕陽川
誰知捐盡人間念 唯執檀栴拂晚煙

첫 구비는 여울목에 낚싯배 띄우니
실같은 바람이 석양 냇가에 돌고 돌도다.
뉘 알리오, 인간 세상의 생각일랑 다 버리고
오직 향나무 돛대 잡아 저문 연기를 휘젓는 줄을.

一曲은 鳳飛岩¹⁰³⁾을 소재로 석양에 낚싯배를 띄우고 無心히 노니는 煙霞之景을 읊었다.

二曲佳姝化作峯 春花秋葉靚粧容
當年若使靈均識 添却離騷說一重

둘째 구비는 아름다운 아가씨가 봉우리로 화해서
봄꽃과 가을 잎으로 얼굴을 단장했네.
그때에 靈均(屈原)에게 알렸더라면
이소경의 한 귀절 더 붙였을 것을!

二曲은 屈原의 離騷經에 비유할 만한 寒岡臺¹⁰⁴⁾의 아름다운 絶景을 읊었다.

102) 前掲書, p. 15.

103) 경북 성주군 수륜면 신정동.

104) 경북 성주군 수륜면 수성동.

三曲誰藏此壑船 夜無人負已千年
大川病涉知何限 用濟無由只自憐

세째 구비는 이 구렁의 배를 그 누가 숨겨 두었던고
어두워 짙어질 사람 없어 천년 세월 지나갔네.
큰 냇물 건너는 배 고생한 이 그 열말까?
건너주려 하여도 방법이 없어 다만 제대로 어여쁘네.

三曲은 舞鶴亭¹⁰⁵⁾을 소재로, 한 것으로, 천년 동안 외로이 골짜기가 배 형상을 하고 있음을 읊고 있다.

四曲雲收百尺巖 巖頭花草帶風簾
箇中誰會清如許 獨月天心影落潭

비껴 구비는 백척되는 바위에 구름은 걷히고
바위머리 화초들은 바람결에 살랑살랑
그 가운데 저렇듯이 맑은 경치 그 누가 알아주랴!
갠 달 하늘 복판에 그림자 못에 지네.

四曲은 맑은 달밤 못에 비치는 높은 立岩¹⁰⁶⁾의 威容을 읊었다.

五曲清潭幾許深 潭邊松竹自成林
幅巾人坐高堂上 講說人心與道心

다섯 구비에는 맑은 못이 얼마나 깊은고
못가에 松竹들은 저절로 숲이 되었네.
幅巾 쓴 사람이 높은 마루에 앉아서
人心과 道心을 강설하고 있노라.

五曲은 括印岩¹⁰⁷⁾에서의 講學의 生活相을 읊고 있다.

六曲茅茨枕短灣 世紛遮隔幾重關
高人一去今何處 風月空餘萬古閑

여섯 구비는 떠집이 짙막한 물구비를 베고 있어
어지러운 세상에 몇 겹의 관문을 가리었는고?
높은 사람도 한 번 가더니 이제는 어드멘고
風月만이 만고의 소요함을 남기었네.

六曲은 玉流洞¹⁰⁸⁾에서의 隱遁生活을 할 때의 心像을 그리고 있다.

七曲層巒遶石灘 風光又是未曾看
山簷好事驚眠鶴 松露無端落面寒

105) 경북 성주군 금수면 무학동.

106) 경북 성주군 금수면 영천동.

107) 上 同.

108) 경북 금릉군 증산면 유성리.

일곱 구비에는 층층한 봉우리가 돌여울을 둘러서
이 경치는 또한 일찍이 보지도 못하였비.
산신령은 일을 좋아해 잠자는 학을 일깨우고
소나무 이슬만 무단히 얼굴에 떨어져 차가웁네.

七曲은 滿月潭¹⁰⁹⁾에서 돌여울을 둘러 선 층층한 봉우리에 학이 나는 風光을 읊었다.

八曲披襟眼益開 川流如去復如迴
煙雲花鳥渾成趣 不管遊人來不來

여덟 구비에는 가슴을 헤치자 눈이 더욱 번쩍 뜨여.
냇물은 흘러 흘러 가는 듯 돌아오는 듯
연기·구름·꽃·새 혼연히 취미로 되어
노니는 사람 오거나 안오거나 판계치 않더라.

八曲은 臥龍岩¹¹⁰⁾에서 자연과 혼연히 一體가 되어 人間을 잊고 사는 생활을 그리고 있다.

九曲回頭更喟然 我心非爲好山川
源頭自有難言妙 捨此何須問別天

아홉 구비에는 머리를 돌이켜 다시 탄식하니
내 마음은 산천만을 좋아함이 아니로세
윗 구비에는 제대로 말하기 어려운 묘한 곳이 있어
이를 두고 어찌 또 별천지를 물으랴!

九曲¹¹¹⁾에서는 단순히 山川만을 좋아함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오묘한 眞理를 깨우치는 학문 탐구의 생활을 말하고 있다.

寒岡은 自然을 통해 人格을 陶冶하고 學問의 世界에 몰입한 고결한 선비였음을 이 詩에서 읽을 수 있다.

(3) 致仕歸田

聖賢을 평가하는 말에 三不朽說이란 것이 있는데, “太上立德, 其次立功, 其次立言”이 그것이다. 유교 사회에서의 양반은 修德이 첫째이고, 仕君이 둘째이고, 學問研鑽이 셋째로 여겨졌기 때문에 힘써 공부를 하여 과거에 급제하면 官路에 나아가 자기가 배운 바 經綸과 포부를 마음껏 펴 濟世安民을 하다가도, 일단 君主로부터 버림을 받으면 致仕歸田해서 聖賢書를 벗하며 學問 연마에 힘쓰는 것이었다. 致仕歸田은 바로 官職을 내놓고 田園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을 주제로 한 것이다.

寒岡은 田園에서의 學問·修養에 더욱 뜻을 두고 과거에 나아가지 않았지만 임금의

109) 경북 금릉군 중산면 평촌리.

110) 경북 금릉군 중산면 평촌리.

111) 龍湫 경북 금릉군 중산면 수도리.

부름을 받아 官路에 나아가 그의 經綸과 포부를 펴던 시절이 있었다. 風塵 속에서 富貴功名은 본래 非願不親이었으나 東岡 金宇頤의 천거로 官職生活을 시작하게 되매 직위의 高下에 超然한 선비의 자세로, 在任한 고을마다 學을 일으키고 善政을 베풀어 어진 牧民官으로서의 功德을 남겼다. 이것은 寒岡의 光明正大하고 剛直한 性品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이미 官職에 뜻을 두지 않고 後生에 대한 敎育과 自身の 學問에 전념하려는 뜻이 깊었으므로 벼슬길에서 몇 번이나 물러나곤 했었다. 그의 致仕歸田類의 作品은 대체로 江湖生活에 對한 憧憬 속에서 좀더 깊은 관리로서의 의무감과 백성들에 대한 愛民精神이 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 벼슬인 창녕 현감으로 있을 때 지은 詩〈昌寧衙閣偶吟二首〉¹¹²⁾를 보면,

失計昌山事事非 思之百爾不如歸
夢魂不省虛名縛 夜夜無端遶故磯

창녕에서 정치를 잘 하지 못하였으니
아무리 생각해도 돌아감이 좋을 듯.
꿈속에 벗인들 헛된 이름에 묶이지 않고
하열없이 밤마다 고향 물가에 애틍네.

이 詩는 昌寧縣監 시절에 지은 것으로 그가 얼마나 백성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애쓰며, 자신의 고고한 선비 정신을 잃지 않으려고 애썼는지 잘 나타나고 있다. ‘백성 돌보기를 肉親과 같이 하라’는 信條를 늘 잊지 않고 실행하기에 앞장 섰으며, 講會稷 조적으로 興學에 힘쓰기도 하고 가난한 백성 구제 등 政事에 온갖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면서도 江湖歸心을 보이는 것은 孤高한 선비의 자세로 헛된 名利에 흔들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二首에 계속해서

官府山林事豈同 勞勞役役簿書中
民病未醫身病急 何如歸臥北窓風

벼슬과 山林의 일이 어찌 같으리
관청의 문부 속에 괴로움만 많구나!
백성의 고통은 씻어주지 못하고 몸의 병만 더 깊어가니
차라리 고향땅에 돌아가 마음 편히 지내리라.

俗塵에 묻혀 어지러운 마음을 서재로 돌아가 激濁揚清의 德을 닦고 싶었던 意志가 뚜렷하다.

후일 그는 다시 〈閔昌山舊蹟偶吟〉¹¹³⁾을 쓰면서,

貧未相購病未醫 善難爲勸惡難治
虛名祇誤楓宸獎 偷取當時五品資

112) 前揭書, p. 14.

113) 前揭書, p. 15.

寒岡의 生涯와 文學

가난한 이를 구제하지 못하고 병든 이도 고쳐주지 못했으며,
착한 일도 권하기 어려웠고 악한 일도 다스리기 어려웠는데,
헛이름으로 다만 임금님의 칭찬만을 받았으니,
당시에 오름 벼슬을 공연히 받았도다.

致仕後이지만 벼슬길에서 어려움을 겪어 나가던 시절을 회고한 詩다. 일단 官路에 들어선 이상 자신의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고 백성들을 教化하고 人倫道德을 널리 펴고자 애썼으나, 언제나 마음에 흡족치 못하던 政事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고귀한 人品과 經綸을 가졌으나 일개 五品 벼슬로는 匡君扶俗의 업두도 내지 못할 時勢였으니, 비록 왕의 신임은 받는다지만 선비로서 지조를 변개하여 가며, 時勢의 흐름을 따라 교묘한 처세로 벼슬살이하는 그런 俗人은 결코 될 수 없는 性品이었다.

李朝時代에 官路에서 벗어나 江湖生活을 대상으로 읊은 文學世界에 나타난 江湖歌道의 世界를 보면, 비록 自然으로 물러나 속세를 잊고 사는 듯하지만, 自然에 隱居할 수 있는 근거도 君恩에 두고 있어, 언젠가는 임금의 부름을 받고 官界로 돌아가고자하는 의지가 숨어 있다. 곧 自然은 隱遁生活의 수단이었지 目的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寒岡의 詩 作品에서는 오히려 官界에 나와 있는 自身이 無力하기만 하고 物慾에 차 있는 것같이 후회스러운 감정이 들어 있기도 하다. 그의 詩作 性格 中の 하나는 이와 같이 自身의 人生觀이 솔직하게 表出되어 있는 점이기도 하다. 그가 禮學을 중시하고 번잡스러운 속세를 벗어나 講學의 生活을 한 것도 이러한 성격의 반영인 듯하다.

그는 〈次李玉山韻〉¹¹⁴⁾에서

攬此長腰折 寧非爲斗粟
塵埃眯兩目 何日及初服

부끄럼구나! 긴 허리 꺾은 것이
어찌 재물을 위한 것이 아닌가?
티끌이 두 눈을 흐리게 하니
언제나 옛 모습으로 돌아가리오.

俸祿에 몸을 굽히지 않겠으며, 世間の 속됨을 물리쳐 草野에서 가난한 선비로 지조를 지키며 學問하던 때로 돌아가고자 함을 읊은 詩다. 벼슬길에 나서 있음이 재물에 눈이 어두워 긴 허리를 꺾은 듯, 즉 선비의 지조를 꺾은 듯하여 自身 스스로를 무섭게 채찍질하고 있는 것이다. 致仕歸田하여 淸貧한 선비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오히려 고지식해 보일 정도로, 대쪽같이 끝은 性品으로 잘 나타나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더 엄격한 道德家였음을 알 수 있고, 얼마나 벼슬하기 전, 선비로서 聖賢의 말씀을 배우던 시절을 그리워하는지 알 수 있다. 〈題川谷書院誠正堂〉¹¹⁵⁾에서도

114) 前掲書, p. 14.

115) 前掲書, p. 14.

舊長來尋新院成 却羞塵土滿衣纓
何年可遂投簪計 盡日晴窓閱古經

묵은 원장이 찾아오자 새 서원이 낙성되네
부끄럽구나, 내 의관의 티끌과 먼지
어느 해에 벼슬을 버리려는 뜻을 이루고
밝은 창 앞에서 종일토록 책이나 읽을꼬.

세상에 附和雷同할 줄 몰랐고 언제나 자신의 소신대로 處世하면서 학자로서의 志操를 간직하려 했던 寒岡은 俗世의 風塵에 섞인 自身의 모습을 돌아다보니 자꾸만 부끄러워진다. 어지러운 世上, 벼슬을 버리고 서재로 돌아가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학문의 세계에 몰입할 수 있는 自身만의 境地를 갖고 싶은 것이다.

寒岡은 지방관으로 있을 때 쌓은 치적을 보더라도 그의 여러 방면에 광범위한 學問은 經世濟民의 학문이었음을 알 수 있고, 학문 연구와 더불어 제자 교육에 몸을 바쳐 후세를 위하여 많은 책을 지어내어 이조 후기의 實學思想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肅宗實錄’에 의하면 조정에서도 寒岡을 東方 心學의 으뜸이라 하였으며 <心經發揮>를 우리 나라 성리학의 표준 사전으로 삼고 있다고 할 정도로 그가 學問에 끼친 공헌은 크다고 할 것이다.

(4) 節義清貧

寒岡은 江湖에서 學問과 수양으로 선비다운 志操을 지키며 淸貧하게 人間담게 살면서 天道 지키기를 즐겨하였다. 곤궁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淸風明月을 벗삼아 평안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는 마음 속의 富貴는 世人들이 갈구하는 富貴榮華를 조금도 부러워 하지 않는 마음의 수양에서 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자신의 信念을 굽힘이 없이 의연한 자세로 先賢들의 정신을 거울로 삼아 田園에서 優遊自適한 높은 경지의 생활 모습이 그려진 詩들을 본다. 먼저, <偶吟>¹¹⁶⁾을 보면,

心閑增道氣 忍事適災屯
謹言終少禍 節儉勝求人

마음이 한가하니 진리의 기운이 더하고
일마다 참으니 재화가 적구나
말을 삼가면 마침내 화가 적어지고
절약하고 검소하면 남에게 구걸함보다 낫다.

한가한 가운데 節義를 숭상하는 마음과 道徳이 깊어지고, 참고 말을 삼가는 가운데 世事的 禍를 피하는 道理를 실파하면서 절약·검소함에까지 修道하는 마음이 이름에 생

116) 全書 上, 續集 卷之一, p. 275.

환 그 자체에서부터 겸허한 마음으로 살아온 寒岡의 眞面目을 볼 수 있는 詩다. ‘詩란 사람의 천성과 정서를 조정하고 인간 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¹¹⁷⁾ 朱子學의 학문적 목적이 개인의 덕성을 도야시켜 사회 교화, 나아가 국가의 안녕을 도모함에 있음은 물론이다. 朱子學이 유학 본래의 道인 修·齊·治·平의 원리 강구를 위하여 생성되었던 학문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修身의 과정으로 각 개인의 심성 도야는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중요시되었다. 인간의 性·情이 순화되어 모든 私心이 제거됨이 사회 교화와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文學은 道를 전파시키는 수단’으로 보았기에 性·情을 읊어 낸다는 詩 또한 道에 對한 강력한 정신적 취향 의지의 발현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경향이 寒岡의 詩에도 반영되어 修道의 心性이 그대로 純粹하고 素朴하게 表出되어 있는 것이다.

그의 生活態度의 清廉함은 <題檜湖草堂>¹¹⁸⁾에서

小小山前小小家 滿園梅菊逐年加
更教雲水粧如畫 畢世生涯我最奢

낮고 낮은 산 앞에 조그마한 초가집
매화와 국화는 해가 갈수록 뜰에 가득
다시 구름과 물로써 그림같이 단장하니
세상에 나의 생애 가장 호사하여라.

한 폭의 그림같이 그려져 있다. 산·물·구름이 어울리는 自然 속에서 江湖生活에 대해서 變節 없는 貞操가 잘 나타나 있다. 뜰에 무성해 가는 梅花·菊花는 淸貧한 선비의 생활과의 어울림이 대단하다. 가난한 중에서도 財物을 탐하지 않고 節義를 지킬 수 있는 淸白한 마음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그러니 <題社倉新構>¹¹⁹⁾에서는

小小生涯小小家 志存容膝更無加
半生已熟茅茨下 瓦覆新居便覺奢

보잘 것 없는 생애 초라한 집인데
뜻이 容膝하는 데 있었으니 이에 더해 무엇하리.
반생을 초가살이에 익숙했는데
기와집에 살게 되니 이 아니 사치한가!

반평생을 초가집에서 살아왔는데 기와집에 살게 되니 사치함을 느끼겠고, 작은 집이나 이 몸 하나 둘 수 있으니 이보다 더해 무엇하겠느냐고 읊고 있다. 物慾 없이 사는 선비의 生涯에서는 山水를 벗삼아 풍요로운 마음으로 安分自足하며 사는 生活이 最上이건만 새 집을 지음에 淸廉한 선비의 생활에 사치스럽고 마음이 불편한 것이다. 寒岡의

117) 詩之爲道 可以理性情 善倫物(沈德潛：說詩晬語).

118) 全書 上, 文集 卷之一, p. 16.

119) 前揭書, p. 16.

詩엔 道學者的인 분위기가 많이 내포되어 있으며 또한 그것은 가식없이 詩로써 잘 표현되어 있다.

그는 계속하여 〈無題二首〉¹²⁰⁾에서

宰相家爲處士家 在前爲儉在今華
却於華儉無心了 好向前樞臥日斜

재상의 집이 선비의 집으로 되었으니
전에는 검소더니 이제는 화려하네.
검소하고 화려함에 마음쓰지 않으리.
앞 처마를 바라보며 석양에 누웠노라.

선비의 집이 재상의 집보다 마음은 더 富하고 화려하다고 노래하여 부귀영화에는 마음을 두지 않은 진정 선비다운 선비였음을 실감케 하는 詩다. 앞에서 본 검소함에까지 이르는 修道하는 마음이 생활화된 한가로운 경지이다.

그는 계속하여,

宰相家爲處士家 也應人道更增華
滿園種得梅花樹 疎影參差竹外斜

재상의 집이 선비의 집으로 되었으니
사람마다 더욱더 화려하다 말하겠네.
뒤뜰에 가득히 매화를 심었으니
성군 그림자가 길고 짧게 대숲 밖으로 비스듬히 비치네.

寒岡은 항시 성인의 가르침을 거울삼아 자신을 반성하며 겸허한 태도로 몸가짐을 조심하는 修養人으로서의 眞面目을 詩에서 느끼게 한다. 世人의 관심에는 아랑곳 없이 뒤뜰에 梅花와 대나무를 심고 선비의 節義와 淸貧한 가운데 孤高한 趣向을 누리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무르익는 情趣는 〈次金陝川昌一韻〉¹²¹⁾에서

故人相見即情親 燈下依然舊幅巾
款款淸談風雨夕 滿盤春采未爲貧

그대를 만나보니 정든 옛 친구로세
등불밑에서 보니 幅巾 쓴 옛 모습 그대로구나!
다정한 淸談을 바람불고 비오는 이 저녁에 나누니,
상에 가득한 봄나물이 가난하지 않도다.

비바람치는 저녁이지만 등잔불 아래 故人과 淸談을 나누는 분위기는 世上 어느 것도 부럽지 않은 마음의 富를 느끼게 한다. 故人과 淸談을 나누는 至高한 순간이지만 道學者的인 태도로 安貧樂道를 論하고, 봄나물 가득한 밥상에까지 섬세한 詩眼이 미치고

120) 全書 上, 續集 卷之一, p. 275.

121) 全書 上, 文集 卷之一, p. 16.

있다. 이러한 寒岡의 詩心은 바로 性理學이 치우치기 쉬운 性格 中の 하나인 空理空論의인 理論에서부터 벗어나, 한층 實生活에 實用性 있는 學問인 禮學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학문을 꽃피우고 집대성한 學問的 態度와 관련이 깊다고 생각된다.

만년에 봄을 맞는 글 〈春帖〉¹²²⁾에서

翁惟靜坐終日 兒亦讀書自修
蔬食菜羹亦樂 萬般此外何求

늙은이는 종일토록 고요히 앉아 사색하고
아이 또한 글 읽으며 제 일만 하도다.
나물밥, 나물국이라도 참으로 좋아라.
이밖에 또 무엇을 구하리오.

草堂의 한적함과 悠悠自適한 가운데 安貧樂道하는 生活이 잘 그려져 있다. 나물밥, 나물국 이밖에 무엇을 더 구하겠는가라고 읊은 것에서는 淸貧無慾의 生活相이 한눈에 보인다. 唐詩人 杜甫의 詩 ‘江村’에서 느낄 수 있는 安分知足의 마음이다. 貧而無怨하면서 선비의 節義를 지켜온 인자하고 돈후한 性品이 詩 속에 폭 젖어 있으니, 生涯와 學問과 生活이 융합 일치된 점에서 寒岡의 詩作品은 더욱 빛을 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 憂國歎詩

自然을 벗삼아 江湖生活을 追求하여 왔지만 現實을 逃避한 安逸한 生活만을 영위해 온 것이 아니라 現實이 그를 필요로 할 때에는 果敢하게 參與하여 올바른 道理를 행하기에 힘썼다. 國政이 흔들리고 世俗의 秩序가 混迷할 때는 決然히 붓을 들어 上疏했으며, 그가 通川 郡守로 있을 때 임진왜란을 당하여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忠誠과 愛國心으로 당당히 적을 토벌하기 위해 義兵을 일으키고, 檄文을 돌려 훈련된 兵士를 모집하여 조국 수호에 앞장을 섰으며 愛民精神을 잃지 않고 백성을 돌보았다. 분명한 文士였으나 風前燈火와 같은 나라의 위급한 앞에서는 어느 武將 못지 않게 적을 물리치기에 奮然하였으니, 이것은 바로 保國安民의 선비 정신의 發露라 할 것이다. 寒岡이 남긴 詩는 많지 않지만 憂國의 심정과 時世를 열려하는 마음이 길게 깔린 작품을 살펴보면 다움과 같다.

먼저, 〈歎詩〉¹²³⁾를 보면,

內官三百外三千 王事留心有幾人
聖上憂勤勞夙夕 群臣嬉戲醉昏晨

내직 삼백, 외직 삼천인데
나라일에 전심하는 사람 몇인가?
임금님 자나깨나 걱정만 하시는데

122) 前揭書, p. 14.

123) 前揭書, p. 15.

못 신하들은 밤낮으로 술에 취해 노니도다.

臣下들이 酒色雜技에 빠져 國政을 바로 살피지 못함을 한탄한 내용이다. 社會의 安靜은 道德의 確立에 있다고 볼 때, 道德의 衰退 특히 群臣들의 타락상을 恨歎하는 것은 爲國의 心情이며 忠과 통하게 된다. 나라가 어지러운 때 과연 忠臣이 얼마나 되냐고 직선적으로 告發한 詩다. 文士의 매서운 詩眼과 筆力을 느끼게 한다. 自然을 좋아하는 어진 성품이고 백성의 작은 일까지 관심을 갖고 살피주던 온화한 기품이기에, 公的인 일에 是非를 가리는 기품이 어디에도 屈하지 않는 강직한 표현은 선비정신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나라가 어지러울 때 벼슬길에 나선 그의 意志의 한 斷面은 〈以承旨入直次壁上同僚韻〉¹²⁴⁾에서 찾아볼 수 있다.

壯志平生老未殘 新磨袖裏劒光寒
不須凍死虛堂夜 白日同瞻萬國安

내가 품은 큰 뜻은 늙어도 변함없어
소맷속 칼을 가니 칼빛이 차가웁네.
한밤중 빈집에서 어찌 얼어 죽으리오.
밝은 날에 세상이 평안함을 보리라.

文士라기 보다는 차라리 武士의 氣概가 넘치는 글이다. 소맷속의 劒光에서는 한평생 學問과 修養으로 닦아온 忠節의 날카로움이 번뜩이고 있다. 夢昧하므로 나라의 어지러움을 아무런 대비도 없이 당할 수는 없다. 草野에 묻혀서 닦아온 學德을 治國安民의 이념으로 나라를 위해 큰 포부를 펴 보고 싶은 것이다. 萬古의 爲國忠節이 드높은 作品이다. 그의 〈無題〉¹²⁵⁾를 보면

月沈空谷初逢虎 風亂滄溟始泛槎
萬事莫於平處說 人生到此竟如何

달이 침침한 골짜기에 범을 만났고
바람이 어지러운 큰 바다에 처음으로 뱃목을 띄웠구나!
만사를 평탄한 곳에서 말하지 말라.
인생이 이 지경에 이르면 다침내 어찌하리.

草野에 隱居하여 講學의 生活을 하던 선비의 글이지만 時政에 敏感한 反應을 보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어려운 위기에 처한 나라의 백성으로 벼슬길에 오른 첫길이 무척 심각하게 받아 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조심성은 憂民思想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되며 現實을 관망만 하게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叱咤하는 심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124) 前掲書, p. 15.

125) 前掲書, p. 16.

時事와 관련된 詩로는 〈次金東岡會寧途中韻〉¹²⁶⁾이 있는데,

窮途由我不由天 莫恨潮州路八千
此日正爲安命日 餘年盡是省僞年
江南莫解秋蘭佩 宣室應思夜席前
這裏經過知玉汝 乾坤恩造更無邊

窮途¹²⁷⁾의 슬픔이 나로 말미암았지 하늘에 말미암음은 아니야.
潮州 八千里¹²⁸⁾길을 한하지 말지어다.
이날이야말로 바로 天命대로 편안히 받는 날이 될지니,
남은 나이는 모두 이 허물을 반성할 나이로다.
강남에 가을 난초의 패물[자기의 울고 향기로운 심정]을 풀지 말지며,
宣室¹²⁹⁾에서 응당 밤자리에 앞으로 나아감을 생각할지라.
그 가운데서 지내감이 너를 옥으로¹³⁰⁾ 만드는 줄 알지어다.
천지의 만들어 주는 은공이 가이 없도다.

己丑獄事¹³¹⁾로 會寧으로 귀양가는 金東岡을 보내며 당과 싸움에 휘말린 허물을 뉘우치고, 선비 본연의 자세를 지키며 心身을 수양하여 忠心이 임금에게 전하여지는 날까지 기다려 주기를 바라는 글이다. 東岡은 孔子의 學問을 깊이 연구하여 조예가 깊고, 南冥의 제자로 德行이 높았으나, 당파에서 東人으로 몰려 귀양을 가게 된 것이다. 자신 앞에 닥친 시련을 잘 극복하여 玉으로 닦아내는 지혜로움을 길러 世波에 휩쓸리지 않고 天命대로 살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잘 나타나 있다. 이는 깊은 友情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내용이며, 한 시대의 難波에 같은 배를 타고 진심으로 의지하며 밀어주는 同志愛를 보여주는 詩인 것이다. 다른 詩에서보다 故事의 引用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가 十三歲에 지은 〈玉斗詩〉¹³²⁾를 보면

瀉池遺壁報祖龍 大澤蛇斷悲神母
白髮謀臣昧天命 鴻門枉碎雙玉斗
當年天地暗風塵 草萊群雄期一籌
神器由來力難賭 約束先遣劉寬厚
百二函關忽見鎖 重瞳叱咤風雷吼
鴻門一夕講高會 十萬旌旗擁前後
乾坤付與一酬酢 天下不知歸誰手

126) 全書 上, 續集 卷之一, p. 275.

127) 窮途: 길의 끝나는 곳, 옛날 阮籍이란 이가 길이 窮途에 당하면 반드시 통곡하였다는 고사(晉書, 阮籍傳).

128) 潮州八千里: 옛날 당나라의 韓愈가 潮州로 귀양가게 됨에 '夕貶潮州路八千'의 글귀에서 나온 말(韓文公文集).

129) 宣室: 宣室은 漢의 未央殿前의 正室, 여기서는 옛날 한나라 文帝 때 강남으로 귀양갔던 賈誼가 귀양이 풀려서 임금의 앞에 올 때 宣室에서 임금의 引見을 받아 앉자리로 불려 나아간 고사(漢書, 賈誼傳).

130) 玉의 경우엔 치한 것을 하늘에서 너를 옥으로 만든다는 고사 王用玉汝于成(詩經).

131) 己丑獄事: 1589년(선조 22) 정여립의 모반을 계기로 일어난 옥사. 東人이 크게 박해를 받게 되어 이후 전라도를 한때 反逆鄕이라 불렀다.

132) 全書 上, 文集 卷之一, p. 16.

舞劍罽前白日昏 擁盾幸脫神龍走
 崐山剛質作一贅 留與謀臣勤稽首
 如何范公謫遷怒 自擬乾坤容力取
 當時恨不殺沛公 眼已電落杯中酒
 袖裏空藏拳抉手 揮來玉屑飛左右
 不將仁義輔君王 縱碎此物知何有
 鴻溝明日漢楚別 畢竟四海歸劉后
 衰骸未過彭城角 霸業已墮吳江口
 吾知玉斗賭秦鹿 圯上神謀天所授
 君看虛禮亭實福 歷年縣縣四百久

滴池에서 구슬을 얻어 祖龍(秦始皇)에게 보고하고
 큰 못에 뱀이 끓이매 神母가 슬퍼했다.
 천머리의 謀士는 天命에 어두워서
 홍문¹³³⁾에 헛되게 두 玉斗¹³⁴⁾만 부수었네. ¹³⁵⁾
 그 당시 천지간은 風塵으로 어둡고
 풀밭에 못 영웅이 한 빗자루를 작정했네
 천하는 원래 힘으로 앗기 어려워
 너그럽고 후한 劉邦을 먼저 보내기로 약속했네.
 百二의 函谷關이 갑자기 잠겼고,
 重瞳¹³⁶⁾의 부르짖음 바람 번개 치듯 하네.
 鴻門의 하룻밤 큰 모임에
 십만의 군사가 앞뒤로 옹호하네.
 온 천지를 한 수작에 부쳤으니
 천하가 누구 손에 돌아갈꼬?
 술등이 앞 칼춤에 白日마저 캄캄해지니
 방패를 잡고 神龍(劉邦)을 탈주시켰네
 곤륜산의 강한 玉으로 한 폐백을 만들어
 모사에게 바치고 머릴 조아렸네.
 어찌타 范公은 본풀이로서
 이 천지를 힘으로 취하려 하는가
 漢沛公 못 죽인 것이 恨이 되어.
 눈에 튀는 번갯불 술잔에 떨어졌네
 소매 속에 헛되게 옥패물이 들어서
 내리치매 옥가루가 날아서 흩어지네.
 仁義로써 君王을 돕지 못하고
 이 물건 부순들 두엇하리오.
 다음날 鴻溝로써 楚漢이 갈라지더니
 필경은 온 천하 劉氏임금에게 돌아갔네.

133) 지금의 陝西省 臨潼縣에 있는 땅이름 漢高祖 劉邦과 項羽가 會見한 곳.

134) 옥으로 만든 술 뜨는 국자. 王斗一雙 欲與亞父(史記).

135) 鴻門宴 말에 漢高祖는 피하여 나가고 張良이 대신하여 項羽와 范亞父에게 선물을 바치는데 范亞父가 화가 나서 칼을 뽑아 그 앞에 바쳐진 玉斗를 부숴버린 故事(史記).

136) 눈동자가 둘인 사람, 여기서는 項羽를 指稱함.

늪은 해골 彭城 모퉁이를 지나기도 건에
霸業은 吳江〔烏江〕어귀에 떨어지고 말았네.¹³⁷⁾
내 보기에 玉斗로써 진나라 사슴을 앓았으니
흙다리 위에서 張良이 얻은 제책 하늘에서 주어졌네.
그대여 보라 허례로써 實福을 누려
400년 길이길이 연대가 넘어가네.

그리고 그는 〈武屹夜詠〉¹³⁸⁾에서

峯頭殘月點寒溪 獨坐無人夜氣淒
爲謝親朋休理屐 亂雲層雪徑全迷

산꼭대기 새벽달은 찬 시내에 비치는데
나 홀로 앉았으니 밤기운 서늘하네.
친구를 사절하고 신발을 닦지 말지니
어지러운 구름과 쌓인 눈에 앞길이 아득하네.

寒岡은 세상의 번거로운 일을 피하고자 武屹에 草廬를 짓고 起居하였다. 壬亂・丁酉・再亂 등의 혼란을 다 겪고 난 후 自然의 한적함으로 돌아와 書冊을 벗삼아 閑居하고 있지만, 마음 속의 나라에 대한 근심은 끊을 수가 없다. 여기서 亂雲과 層雪은 혼란이 다가지지 않은 나라의 전도에 놓인 많은 역경을 비유한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세상을 등지고 사는 길은 올바른 선비의 길이 될 수 없다. 선비는 학문을 닦기에 부지런하고 덕을 높이 쌓는 사람이며 志操 높은 사람으로 義氣에 넘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볼 때 나라의 義氣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염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道學者로서 德을 키워 온 그였지만 말년에 이르러서도 나라에 대한 근심은 떨쳐버릴 수 없었던 것이다.

(6) 惜別追慕

寒岡은 側近의 知己나 門人들이 棄世하거나 서로 離別하게 될 때 追慕나 惜別之情을 아끼지 않았으니, 그가 높은 德行을 바탕으로 한 인자한 性品임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바로 東方心學의 祖宗이라 일컬을만큼 大碩學이 될 수 있었던 기본 자질이기도 하였다.

그는 〈戊午 七月 十二日 酒席次門下諸生韻〉¹³⁹⁾에서

悲痛餘懷脉脉長 諸賢何用又開觴
只緣致慰非爲樂 多謝清談也滿堂

비통한 나의 회포 말없이 길기만 한데
그대들은 무엇하러 술자리를 베푸는가?
나를 위로하러 함이요, 기뻐하러는 것이 아니야
清談이 가득 피어 오르니 참으로 고마와하노라.

137) 烏江은 楚의 項羽가 漢의 劉邦에게 쫓겨 자살한 곳. 中國 安徽省 和縣의 東北을 흐르는 江. 項羽가 烏江에서 죽자 그의 꿈이 사라졌음을 뜻함.

138) 全書 上, 文集 卷之一, p. 15.

139) 前掲書, p. 14.

제자들이 酒席을 베풀어 준 자리에서 자신의 人生을 述懷하며 謝禮한 詩다. 이때 寒岡은 泗陽精舍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며 餘生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곳으로 옮기기 전 蘆谷精舍에 불이 나서 平生 著述해 놓은 書冊이 거의 타고 말았다. 그때 寒岡은 ‘하늘이 나를 버린다’면 탄식했다고 한다. 宣祖朝의 파란을 다 겪고 난 뒤이면서도 광해군의 昏政에 부채질한 鄭仁弘과 절교한 이후 옮겨 起居해 온 蘆谷精舍를 잃어버렸음에 老年의 寒岡에게는 큰 충격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悲痛한 懷抱를 위로해 주려는 제자들에게 謝禮한 詩이니, 世俗을 초탈한 道學者이지만 위엄보다는 오히려 人情에 젖어드는 마음을 볼 수 있다. 참으로 어려운 時代를 걸어왔지만 꾀곳이 天性을 지켜온 그의 숨결을 듣는 듯하다.

惜別의 마음은 〈別金東岡朴大菴〉¹⁴⁰⁾에서

山中雲共賞 梅下酒同傾
如何歡未洽 還惜別離情

산중에서 구름을 함께 감상하고
매화 아래서 술잔을 기울였네.
어찌하리오, 기쁜 마음 충족하지 않으니
도리어 이별을 아쉬워 하는 이 마음이야.

나라가 어지러울 때 함께 절개를 지키며 가시밭길을 걸어온 東岡과 大菴에 대한 이별의 情이다. 매화는 선비의 志操와 절개를 상징하는 것으로 매화 아래서 술잔을 기울이던 志友들을 이별하는 마음이야 아무리 丈夫의 氣概라 할지라도 호연치는 못할 것이다. 또다른 惜別의 情은 〈贈別金東岡〉¹⁴¹⁾에

丹楓黃菊政相宜 底事遊人賞此遲
世道嶮巖山路坦 寄言須不負男兒

붉은 단풍나무와 노란 국화가 참으로 서로 걸맞구나.
무슨 일로 사람들은 이 아름다움을 늦게 보는지.
세상살이 험하여도 산길은 탄탄하오.
부탁하네, 모름지기 남자다운 저바리지 말지라.

세상살이 험하여도 절개를 지키며 살아가는 선비의 길을 잃지 말아달라는 부탁이다.一心으로 타는 단풍과 지조 굳은 선비로 비유되는 국화는 바로 東岡과 寒岡 自身の 모습이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서로 어울려 바른 길을 걸어가는 선비로서의 友情과 自負心이 대단하다. 寒岡의 詩에 東岡 金字頤과 관련된 것이 많은데 東岡은 南冥 曹植의 제자였으며 學德이 뛰어났고, 宣祖께 ‘鄭述는 일찌기 李滉과 曹植의 門下에 出入하여 學問과 德行이 뛰어나 마땅히 官에 등용될 巨木’임을 아뢰어 寒岡의 깊은 識見과 고

140) 前掲書, p. 14.

141) 全書 上, 續集 卷之一, p. 275.

매한 人品을 널리 알렸었다.

다른 離別詩 〈送金東岡歸京〉¹⁴²⁾에는

愧我平生不作詩 送君今日詎無辭

○○道義須常念 莫使終迷進退宜

부끄럽도다 나는 평생에 시를 짓지 못하나

그대를 보내는 오늘에야 어찌 시 한 수 없으랴!

○○과 도의를 항상 모릅지기 생각하여

마침내 진퇴의 당연한 길에 아득하게 하지 탈지어다.

惜別의 情이 깊이 서려 있으면서도 서울로 가는 東岡에게 出處의 절도를 지키라는 부탁을 잊지 않는다. 南冥은 ‘士大夫 君子의 깨끗한 범절은 世上에 나아가고 들어감이 분명해야 한다’고 항상 出處의 절도, 義理, 孤高한 氣概와 節操를 강조했으니, 그의 가르침과 함께 당파에 휩싸인 東岡을 안타까와하는 깊은 우정이 깃들어 있는 詩다.

죽음을 哀悼한 挽詞를 보면 먼저 〈挽李剛甫〉¹⁴³⁾에서

自從巖浦雪峯亡 不覺時時淚滿眶

山澤忽焉今又逝 若爲能奈我心傷

巖浦와 雪峯이 죽은 뒤로부터

때때로 눈물이 눈시울을 적시는 것 깨닫지 못하였더니,

山澤이 갑자기 이제 또 가니

이 내 마음 슬픔을 그 어찌 하리오

저물어가는 人生末年에 志友가 하나·둘 스러짐에 옷깃에 눈물이 가득 젖어든다. 초연한 속에서도 여울지는 슬픔이다.

〈挽安宜之〉¹⁴⁴⁾에서는

憶初傾蓋洛陽頭 忽忽今垂卅載秋

詩酒園樂懷耿耿 樹雲遮隔思悠悠

況病恹我淹滯久 一病嗟君去不留

聞道柳車將夙駕 淒風那禁淚盈眸

추억은 그 옛날 서울길에서 만났던 일

홀홀히 이제야 30년 가을이 지나갔네.

시와 술로 즐길 때면 회포만 아련하고,

樹雲¹⁴⁵⁾이 가리고 막혀서 생각만 길고기네

괴이하다. 묵은 病 가지고도 나는 오래도록 머무는데,

142) 前掲書, p. 275.

143) 前掲書, p. 276.

144) 前掲書, p. 276.

145) 樹雲: 옛날 당나라 시인 杜甫가 친구 李白을 생각한 詩에 渭北春天樹, 江東日暮雲에서 나온 말로, 친구를 생각하는 情을 나타내는 말.

한病으로 슬프다 그대여 가고 머물지 않는가.
 들으니 柳車[상여]가 일찍 떠난다니,
 슬픈 바람에 눈물이 가득 고여 가눌 길 없도다.

친 구와의 쌓인 회포를 생각하매 눈물이 옷깃에 가득케 하는 哀悼의 詩다.
 〈挽李元老〉¹⁴⁶⁾를 보면,

吾人曾見後生中 志氣深嘉力自攻
 鍊業已取三上效 持身須着頭功
 賜花去歲逾南嶺 薤曲今朝向北嶺
 行路不能無歎惜 況堪衰淚對西風

우리들이 일찍기 후생중에서 그대를 볼에
 뜻과 기운은 깊고 아름다우며 노력 또한 돈독해
 학업을 단련하는 때에는 이미 三上의 장원을 이루었고,
 몸가짐에는 모름지기 공부에 가장 힘쓴 효과가 있네.
 지나간 해 어사화 받아 남녘재 넘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상여곡으로 북망산천 향하네.
 길손도 탄식하고 아까워하지 않을 수 없는데,
 하물며, 이 늙은 눈물로 西風을 향하기에 어이 견디리오.

學問과 德行이 남달리 뛰어났기에 더욱 안타까와 인생이 허무하리만치 哀悼하며 읊은 挽詞다.

3. 詩的 技巧

(1) 詩形式

① 詩形面

寒岡의 漢詩 55首를 詩形에 따라서 分類圖示하면 다음과 같다.

詩	形	絶	句	律	詩	排	律	計
五	言	7		1		—		8
六	言	1		—		—		1
七	言	39		5		2		46
計		47		6		2		55

寒岡의 文集에는 詩보다 文이 훨씬 우세를 보인다. 이는 그의 學問的 思想의 요체가 全體大用에 있음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詩中에는 律詩보다는 雅淡爲主의 切截된 詩形인 絶句가 두드러지게 많이 쓰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短形인 五言絶句보다는 七言絶句가 主流를 이루고 있는 것은 餘裕있고 폭넓은 그의 性情의 世界를 破기에 2·3字로 輕快한

146) 前掲書, p. 276.

리듬을 지닌 五言보다는 다소 리듬이 莊重한 七言이 알맞은 詩形이었던 것 같다. 一般的으로 보면, 五言에 비하여 七言은 歌謠的 性格을 벗어나지 못하여 文人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던 바이지만 絶句인 경우에는 호흡·사조·리듬이 짧은 五言보다는 다소 傳達的·即物的인 七言이 많이 쓰였었다.

② 詩式面

寒岡의 詩 55首를 대상으로 하여 平起式과 仄起式으로 分類圖示하면 다음과 같다.

詩式	絶句			律詩		排律		計
	五言	六言	七言	五言	七言	五言	七言	
平	2	1	11	1	4	—	—	19
仄	5	—	28	—	1	—	2	36
計	7	1	39	1	5	—	2	55

일반적으로 詩式은 平起式과 仄起式으로 나누어지는데, 平起式은 強勢가 없는 소리(平聲)를 強調하여 靜的이고 안정된 분위기로 詩를 이끌어 가고, 仄起式은 強勢가 있는 소리(仄聲)를 強調하면서, 動的이며 激昂된 感情으로 詩를 主導해 나가는 한 技法이라 할 수 있다. 寒岡의 詩에서는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七言絶句에서 仄起式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우리 民族史에 우뚝한 學問의 위업을 세우고 어진 牧民官으로서 善政을 펴 公職者의 師表가 되었던 그의 활동적이고 활달한 성격의 一面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2) 特異한 表現

疊語의 使用, 漢字의 音을 巧妙히 利用한 形容詞나 副詞의 사용 등에서 文學的 才致와 纖細한 感情 등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표현으로는 ‘小小’(4회), ‘悠悠’(2회), ‘昭昭’ ‘脉脉’ ‘事事’ ‘夜夜’ ‘勞勞’ ‘役役’ ‘水水’ ‘款款’ ‘時時’ ‘忽忽’ ‘耿耿’ ‘縣縣’ ‘偃偃’ 등 15종류나 쓰이고 있어, 적은 作品數이지만 글을 대할 때 그의 섬세한 마음을 충분히 읽을 수 있다.

(3) 諷刺的 寓意

언어의 발달 과정은 寫實的 단계와 類推의 단계, 象徵的 단계, 셋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중 象徵的 단계가 가장 높은 단계가 될 수 있다. 象徵(symbol)은 ‘조립한다’ ‘짜 맞추다’는 뜻의 그리스語에서 유래한 말로, 기호로 다른 어떤 것을 <대신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바로 문학적 상징은 내적 상태의 외적 기호로 나타날 수 있다. 즉 不可視의인 것을 암시하는 可視의인 것이 상징이 되는 것이다. 象徵은 含蓄(concealment)과 드러냄(revelation)의 양면성을 지니게 되고, 寓意(Allegory)의 現代的 意味는 이러한 점에서 象徵의 一部로 볼 수 있다. 상징의 암시성은 多義性에 있지만, 寓意

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관계가 1:1에 놓인 것이기 때문이다. 주로 寓意는 역사적 시대적 삶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데 사용된다. 미적 가치보다 당대의 삶의 문제에 더 무거운 가치를 두게 된, 삶의 가치이며 윤리적 가치인 것이다.

寒岡은 宣祖朝에서 光海君 2년까지 험난한 시대를 살아왔던 선비였다. 壬亂을 당해서는 檄文을 써서 義兵을 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果敢하게 現實을 直諫하고 疏文을 올리기도 하며, 높은 학식과 명망 그리고 명리를 좇지 않은 人品과 당파를 초월한 자세로 살아왔던 그였다. 이러한 그의 기상이 담겨 있는 作品數가 적은 것은 遺憾스러운 일이나 그 片鱗으로나마 <以承旨入直次壁上同僚韻>을 보면,

壯志平生老未殘 新磨袖裏劒光寒
不須凍死虛堂夜 白日同瞻萬國安

라 하여 劒光은 한평생 닦아온 忠節의 날카로움을, 虛堂夜의 凍死는 夢昧한 가운데 어지러움에 휩싸이는 것을, 白日은 君恩이 환하게 비치는 날 또는 나라의 태평스러움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그대로 칼빛, 빈집에서 밤중에 얼어 죽음 등으로 해석하는 것보다 詩語 속에 든 暗示性을 파악하여 살펴보면 詩를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 詩는 寓意를 통해서 正義의 社會倫理와 平和를 強調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始卜海亭示同來諸君子>에서도

我欲爲亭近海灣 坐中誰作蔡西山
梔橋梅筠須早植 莫教風雨六年間

蔡西山은 朱子の 으뜸가는 제자요, 친구를 일컬음이니, 이 詩에 쓰인 뜻은 寒岡 自身の 學風을 이어갈 으뜸 제자를 찾고자 하는 의도를 볼 수 있다. 梔·橋·梅·筠은 自然樹 그대로의 의미도 지니고 있겠지만, 당시 寒岡이 아끼던 제자들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 할 수도 있으니, 제자들의 學運과 앞날에 거친 世波가 몰아치지 않기를 바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이 詩는 講學의 生活을 하는 學者로서 당시의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학문의 正道를 지켜 나아갈 수 있기를 갈구하는 사회상의 한 단면을 諷刺한 作品이다.

이와 같이 諷刺的 寓意가 드러난 작품으로는 <武屹夜吟>에서

峯頭殘月點寒溪 獨坐無人夜氣淒
爲謝親朋休理屐 亂雲層雪逕全迷

結句에서는, 많은 역경을 거쳤지만 아직 혼란이 다 가지지 않은 상태를 풍자하고 있으며, <次李玉山韻>에서

媿此長腰折 寧非爲斗粟
塵埃昧兩目 何日及初服

<無題>에서

月沈空谷初逢虎 風亂滄溟始泛槎
萬事莫於平處說 人生到此竟如何

〈贈別金東岡〉에서

丹楓黃菊政相宜 底事遊人賞此遲
世道嶮巖山路坦 寄言須不負男兒

등은 諷刺的 寓意를 볼 수 있는 詩들이다.

(4) 寫實的 直叙

寒岡의 詩에서는 平易한 直叙의 表現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表現은 自然의 實體를 寫實的으로 파악하여 詩表現上에 靜觀의 극치인 禪의 이미지를 發散한 美觀을 內包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漢字가 지니는 言語의 특수성을 잘 살려 漢詩에 쓰인 詩語自體가 지닌 包括的인 意味를 통해서 自然眞樂에의 憧憬과 意志의 內面을 情緒化 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作品으로는 前述한 바 〈曉起偶吟〉〈題檜淵草堂〉〈檜淵偶吟〉〈春帖〉〈甲申春帖〉〈晴暉堂偶吟〉〈偶吟〉 등 많은 作品에서도 볼 수 있다.

直叙를 通한 自然의 寫實的 描寫는 주로 叙景의 묘사로 되어 있으나 詩의 原初의 本質이며 言外有意的 抒情의 發露이다.

V. 賦, 紀行文, 記, 序, 跋, 論

1. 賦

朝鮮 後期에 들어서부터는 科賦가 盛行했기 때문에 科學에 뜻을 둔 이는 모두가 賦의 習作에 至대한 관심을 가졌다. 그래서 朝鮮朝 後期の 文士들이 지은 賦는 매우 많았지만 이들 作品은 대개가 筆寫되어 傳해졌을 뿐이고, 文集에 傳하는 例는 거의 없는 實情이다. 따라서 賦文學의 全貌를 알기는 매우 힘이 들 뿐 아니라 많은 文學作品 가운데서도 미개척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漢文學의 독특한 형태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많은 文集 가운데 간혹 한두 편의 賦가 傳하고 있는데, 寒岡의 경우도 立雪¹⁴⁷⁾ 한 편이 그의 文集 속에 傳한다. 作品을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立 雪

曰自聖學之失傳久矣	師道之未聞	紛紜指日而笑侮	夫孰慕悅而親薰
遭伊洛之淵源	欣有得於程門	誠心既切於嚴敬	寧覺雪花之飄翻
幾年處獨而潛修	講墜緒於遠經	悶孤陋之莫助	恐沒世而無名
聞有師兮河之南	挺千載而勃興	紹絕學於鄭魯	發微蘊於顏曾
須我友兮詠而歸	樂自遠之有朋	趁函丈而升隅	願承謨而啓登

147) 全書 上, 續集 卷一, p. 276.

望之嚴兮即之畏	宛神明之莫犯	侍左右兮立如齊	契妙道於觀感
縱先生瞑目而不視	豈小子解體而或忽	專一心之敬謹	正冠襟之端飭
儼對越之在茲	若奉水而執玉	尚不知天日之已西	暇念滿空之騰六
命一許於退私	驚皚皚之盈尺	噫此誠之一心兮	實惟傳道之根基
倘非嚴畏之如斯	夫豈信服之可箭	嚴而畏兮信而服	所以斯道之有托
深西銘之不逆	非昔日之游酢	啓未發之旨訣	道南隨於楊時
各深造乎道奧	指聖域而高追	雖百代之山斗	作師門之羽翼
沉龜山一派之分明	開閭中之盛業	獨恨夫晚年之一蹉	遂浸入乎禪學
背師說而自用	竟不保立雪之初心	然吾道之嫡宗	微二子其誰任
曝是心於一時	揭斯道之尊嚴	吁嗟乎世道之一降	師與弟其俱亡
既未見束脩之行兮	矧足比尊重之可望	夙余有志乎此學	慨生晚而偃偃
立歲寒之風雪	抱遺經兮將安歸	古之人古之人兮	恨不與同歸而攝衣

이 作品은 程明道の 高弟인 謝良佐와 楊龜山이 그의 스승을 찾아 왔는데, 마침 그의 스승인 程明道가 눈을 감고 思索하고 있었다. 그래서 謝良佐와 楊龜山은 스승의 思索이 끝날 때까지 문 밖에서 기다리고 서 있었다. 문 밖에는 흰눈이 내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을 뵈기 위해 눈을 맞으며 서서 기다렸다. 程明道가 思索中 눈을 떠보니 謝良佐와 楊龜山이 문밖에서 얼마나 오래 기다렸던지 門深尺雪이 되었음을 알고는 스승이 제자들을 불러들었다는 故事가 있다.

鄭寒岡의 立雪은 바로 門深尺雪의 故事를 素材로 하여 쓴 賦다. 여기서 立雪은 바로 스승을 만나뵈기 위해 스승의 思索이 끝날 때까지 눈이 내리는 대문 밖에서 기다리다 門深尺雪이 되었던 옛 일을 素材로 하여 쓴 作品이다.

특히 이 作品에서는 聖賢의 學問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올바른 傳授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한탄하고 있다. 謝良佐와 楊龜山이 스승의 명상을 깨뜨리지 않으려고 눈이 내리는 문 밖에서 기다렸던 일처럼, 당시는 스승이 엄하고도 두려운 존재이며 존경과 신뢰는 勿論이고, 스승에 대해 복종하는 가운데 그들 나름대로 진리가 이어져 왔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전통은 찾아볼 수 없다. 공부를 하고자 하나 그런 스승은 찾을 수 없고, 복종하는 제자도 없음을 한탄하고 있다. 聖賢의 말씀을 거울삼아 항시 修養과 謹愼으로 진리 탐구에 정진하겠다는 결의와 스승을 받들고 스승께 學問을 배우는 태도와 마음 가짐이 잘 나타나 있다.

2. 紀行文

寒岡의 遊伽倻山錄¹⁴⁸⁾은 萬歷 己卯年(1579 A.D.) 陰九月十日부터 二十四일까지 약 보름에 걸쳐 쓴 日記體 形式의 紀行文이다.

寒岡은 그해 九月十日에 郭養靜의 권유로 伽倻山을 등반키로 하고, 그 이튿날인 十一日에 近思錄, 南嶽唱酬 등의 책과 양식, 장비를 갖추고 떠났다. 가는 도중에 寒岡臺, 深

148) 全書 上, 續集 卷一, p. 276.

源을 거쳐 李伯愉, 裴童子和 함께 紅流洞에 들러 崔孤雲의 詩를 吟味했다.

그리고 寒暄堂이 讀書修德하던 內院寺와 淨覺庵, 成佛庵, 圓明寺를 두루 찾아 관람하고, 伽倻山 第一峰에서 내려다 보는 自然 景觀에 스스로 감탄하였다. 또한 거기서 智異山을 바라보며 어린 나이에 德을 쌓은 鄭一蠹先生과 晩年에 隱遁養高한 曹南冥先生을 懷憶하였다. 이 두 先生으로부터 學統이 널리 전파되었으니 얼마나 고마운 산인가 하며 경탄을 금치 않았다.

伽倻山 第一峰에서 아득히 한 모퉁이에 약간 모습만 보이는 봉우리가 金鳥山인데, 高麗 500年の 사적을 붙들려고 절개를 지킨 吉治隱의 열이 전하는 유서 깊은 산이 아닌가. 비슬산 밑에 雙溪가 보이며 八公山 밑에 臨臯가 보여, 돌아보니 모두가 피곤하여 바위를 베고 누워 잠시 쉬고 있는데, 안내하는 중이 伽倻山 第一峰에 올라온 기념으로 詩 한 수를 지어달라고 청했다.

知足庵에서 鄭德遠, 李季郁, 金志海, 金渾源을 만나 談笑講說하고, 道村寺, 白雲臺를 돌아보고, 虎坪에 들렀다가 二十四日에 伯愉와 함께 보름간의 遊行을 마치고 溪塾에 돌아옴으로써 日記文 形式의 紀行文이 끝난다.

遊伽倻山錄이 다른 紀行文과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하루에 일어난 일을 그날 그날 記錄한 日記形式의 체제를 따른 紀行文이란 점이다. 伽倻山の 雄壯한 景觀을 한 눈으로 보는듯이 그리 높은 秀麗한 文章이나, 지난 날을 회고하는 作者의 心像이 잘 나타나 있어 文學的인 價値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記

寒岡의 記는 威安社稷壇記, 威州任官題名記, 降仙樓記, 六一軒記, 畫硯記¹⁴⁹⁾로서 모두 5면이다. 各記의 內容을 보면, 威安社稷壇記는 寒岡이 萬曆 丙戌年 겨울에 威安郡守로 부임하여 齋戒沐浴하고 稷의 神에게 拜謁하고 보니, 祭壇이 너무 낡고 황폐하여 耆父老와 상의하여 李喜成, 吳潛을 시켜 수리하게 되었는데, 민폐가 되지 않도록 서서히 무리없이 진행하여 완전하고 훌륭하게 再建했다는 顛末記이다.

威州任官題名記는, 원래 題名記라는 것은 官署의 벽에 退官한 耆의 성명, 경력 등을 기록한 것으로, 寒岡이 萬曆 丙戌年 陰十月에 威州에 任官되어 좋은 遺風을 찾아 본보기로 삼기 爲해서 題名一帖을 수소문하여 얻은 이야기의 記錄이다.

降仙樓記는 寒岡이 降仙樓에 三年間 오르면서 體得한 樓 주변의 아름다운 勝景을 기록한 글이다. 寒岡은 단순히 그 絶勝만을 본 것은 아니고, 樓가 위치한 威州가 옛 東明聖王의 도읍지이고 土壤이 肥美하다는 것과 山河가 險困하여 關西의 第一임을 밝히고 아울러 樓閣의 이름인 ‘仙’字에 연유되는 楚神女의 전설을 부인하는 대신 주변의 奇岩怪壑이며 洋洋히 흐르는 맑은 물, 四季節 따라 교차로 變化하는 森羅萬象의 모습에서

149) 全書 上, 文集 卷十, pp.190-194.

神仙의 存在를 얘기하는 内容이다.

六一軒記는 六一翁이라 칭하는 한 不遇한 隱德있는 某氏를 爲해 그의 은둔하는 뜻을 존중하여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서 그 생활관을 예찬한 글이다. 六一이란 名稱은 宋나라 歐陽修가 取한 그것이 아니고, 知己의 만남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고 있다.

畫硯記는 寒岡이 그림을 좋아해서 일찍이 畫硯을 얻어 소장하며 아꼈는데, 하루는 晦齋先生의 후손인 李秀才가 와서 그 眞價를 알게 되었다. 그 후 벼루에 새겨진 그림의 아름다움과 멋에 도취되었다는 内容이다.

이상의 記 5편 모두가 文學的으로 가치가 높아서가 아니고 當時 漢學者들이 즐겨 쓰던 genre인 記가 寒岡에게도 5편이 傳하고 있어 이를 紹介한 것이다.

4. 序

鄭寒岡의 序는 五先生禮說分類序, 心經發揮序, 治亂提要小敍, 咸州志序, 沙村洞契序, 廣嗣續集序, 西原鄭氏族會圖序, 成川守臣題名案序, 忠原志序, 醫眼集方序¹⁵⁰⁾ 등 모두 10편이다.

五先生禮說分類序는 喪祭禮錄이나 朱門問禮 같은 것이 있으나, 모두가 朱子의 책에서 취한 것으로 不備하고 또 門類가 나뉘어져 있지 않고 다른 意見들이 잡다하게 나타나 있으므로 禮說分類에 착수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各門의 題目 아래 古禮를 간략히 증명하거나 事實을 적어 넣어서 考據에 편리하도록 했다는 内容이다.

心經發揮序에서는 程朱의 훌륭한 말씀이 이 책의 편집에서 빠져 있음이 유감으로 생각되어, 緝錄을 만들고, ‘敬’字에 對해서 특별히 상세한 條項을 두어, 程朱를 비롯한 여러 先生의 ‘敬’字에 대한 공부가 어떠했음을 後學들이 알 수 있게 했다. 그러므로 이는 心經의 理解를 돕는 것을 目的으로 쓴 内容이다.

治亂提要小敍는 한 時代의 政治를 돕는 신하들의 바를 보면 그 時代의 道의 興衰를 점칠 수 있다. 그 사람의 姓名과 官職을 기록할 뿐 다른 것은 상세히 언급할 여유가 없지만, 누가 충성스럽고 누가 간사한가 하는 것과 당대에 있어 行實의 得失을 모두 밝힘으로써 정치인들이 이를 거울 삼아 취하는 바를 삼가도록 했다. 아울러 臣下의 去就大意도 밝혀 두었다.

咸州志序는 寒岡이 병든 몸으로 咸州에 부임하여 몇몇 친구들과 함께 기록할 만한 사실과 증거가 될 수 있는 기록으로써 郡志를 만들고, 百姓을 다스리는 자들이 스스로 경계하여 安民善俗의 要點을 소홀히 여기지 말기를 부탁하는 内容이다.

沙村洞契序는 같은 洞에 사는 사람들은 사사로운 이익을 꾀하지 말고 禮義를 지켜서 서로 돕고 근면하여 始終 해이함이 없게 된다면, 서로 같이 모여서 살게 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뜻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라고 했다.

150) 全書 上, 文集 卷十, pp. 184-190.

廣嗣續集序는 사람이 살아서는 獨夫가 되고 죽어서는 자식이 없어 窮鬼가 됨은 진실로 측은한 일이어서 古今の 方書에 ‘子嗣’의 항목을 세우고 있는데, 만년에 俞予木의 ‘廣嗣’를 입수하고서 크게 기뻐하였으나, 거기에 良方이나 至論이 많이 빠져 있음을 병으로 생각하고, 家藏한 醫書에서 다시 그 類를 모아 增補하여 사람의 번식에 조그마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内容이다.

西原鄭氏族會圖序는 鄭氏가 雪軒·雪谷兩先生으로부터 分派된 후 京鄕에 흩어져 살아가 서로 만나기가 渺然했는데, 이 자리에 와서 世代別로 列坐하여 술을 주고 받으며 뿌리를 생각하게 되었고, 族會圖가 완성됨에 이를 보니 저절로 孝悌之心이 일어난다는 글이다.

成川守臣題名案序는 寒岡이 丁酉年 여름 成川에 도착하여 壬辰亂에 상실되었다는 守臣題名錄草本을 수선하여 己亥年 四月에 마치고, 책 가운데 諸賢들의 행동의 邪正, 政治의 淑慝를 보며 공경의 마음과 얼굴을 찌푸리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것은 後人들이 지금을 봄은 지금에 있어서 前代를 살피는 것과 같으니 두렵기만 하다는 内容이다.

忠原志序는 寒岡이 忠原에 부임하여 崔鎭邦·金培 등과 撰志의 의논을 했으나 얼마 안 있어 떠나게 됨에 유감스럽게 여겼는데, 崔·金 兩君이 같이 도모하고자 하면서 柳德種 등과 같이 참가케 하여 面을 나누어 편찬하기를 청하는지라, 咸州志와 西都志를 보며 참고케 했다. 오래도록 그 結果를 보지 못했는데 어제 崔君이 小冊子 3卷을 부쳐왔는데 그 기록에 있어 소홀한 점이 많지마는 보내온 뜻이 후하다는 内容의 序다.

醫眼集方序는 良方이 여러 책에 흩어져 있어 閉目之人이 하나하나 점검할 수는 없으나, 抄寫하여 한 권의 冊으로 만들고 本草單方이라 命名했다. 모은 바가 精採하지는 못하나 前後名醫들의 所見이 일목요연하니 눈아픈 사람들에게 편리를 제공해 주리라는 内容의 序다.

以上の 序 10편 모두가 寒岡의 秀麗한 筆致로, 게다가 鄭寒岡의 투철한 思想과 人生觀을 吟味할 수 있는 作品들이다. 그러나 文學的 측면에서 그 價値를 論한다면 序 自體가 漢文學의 한 genre로서 傳統的인 樣式에 불과하기 때문에 紹介 정도에서 그친다.

5. 跋

寒岡의 跋은 武夷志跋¹⁵¹⁾과 宣城九老會帖跋¹⁵²⁾ 二篇이 그의 文集 中에 所載되어 있다.

武夷志跋은 寒岡이 武夷志 六卷을 획득하여 늘 愛讀했는데 그 책이 寫本인지라 誤字가 많고 또 편 머리에 11個의 그림도 빠져 있었다. 그래서 傳寫時에 大全詩集의 이 武夷山에 對한 언급을 주로 삼고 一統志로 아울러 채택하여 山川의 빠뜨려진 것을 追入하고 마지막에는 李退溪의 詩跋도 달았다는 内容이다.

152) 全書 上, 文集 卷十, p. 194.

152) 全書 上, 文集 卷十, pp. 195—196.

宣城九老會帖跋은 中國이나 우리 나라에서는 노인을 숭상하는 모임이 많았는데, 그것은 詩나 序가 있어 名家의 文集 가운데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宣城李氏 一家는 三·四代를 전래 오면서 會를 만들었다. 龔岩先生과 李退溪先生이 이 모임에 참여했으며 群老가 계속 이어져 壽星과 德星이 宣城에만 치우쳐 모였다고 했다. 더우기 李先生이 이 모임 가운데 계시어서 공정스럽게 이 글을 쓴다는 內容이다.

이상 跋 두 편의 內容을 보았다. 이들은 漢文學의 한 genre로서 이러한 跋을 쓰는 것을 명예스럽고 자랑스러워 했다. 그러나 跋 그 自體는 漢文學의 한 樣式에 불과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만 그 內容만을 紹介하는데 그친다.

6. 論

寒岡의 論은 問牛喘¹⁵³⁾ 한 편만 전하고 있다. 漢代에는 老氏의 學을 하는 者들이 많았는데, 宰相 丙吉이 외출에서 群盜들이 싸워 죽어가는 것을 목격하고는 그냥 지나치고 한 마리의 소가 더워서 단지 숨을 헐떡거림을 보고는 陰陽四時의 調和가 不順함을 걱정했다는 故事를 비유로 하여 老子를 핑계로 직무에 태만한 위정자들을 통박한 글이다. 그는 어디까지나 유교적인 휴머니즘에 입각하여 백성의 아픔에 마음을 쓰는 宰相이 참된 宰相임을 論述한 글이다.

文章의 빼어난 勿論이고, 文章의 論理 整然性이나 典故의 引用 등이 적절하여 讀者들에게 說得力 있는 글이다. 다만 論 그 自體가 어느 정도 文學的인 가치가 있는지는 斷言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는 顛末의 內容을 紹介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Ⅶ. 結 論

이상 本論에서 穿鑿한 것을 結論的으로 要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寒岡의 生涯와 文學思想을 本研究의 目的인 文學 作品을 理解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側面에 主眼點을 두고, 生涯를 通한 敘述過程에서 그의 文學思想을 考察하였다.

둘째, 寒岡의 學統을 考察하기 爲해서 槪域에 있어서의 性理學의 傳來와 系譜 속에 寒岡의 位置를 設定해 내고, 그 學問的인 授受關係에서의 淵源을 考察하였다. 그래서, 寒岡의 學統은 嶺南學派의 脈을 잇고 그것을 眉叟 許穆에게 傳함으로써 近畿學統 形成의 淵源이 되었음을 밝혔다.

셋째, 漢詩 分析에 있어서는 形式과 內容, 詩的 技巧의 셋으로 나누어 研究하되 漢詩는 寒岡全書에 傳하는 55首를 研究對象으로 하였다.

네째, 漢詩를 形式에 따라 分類해 본 結果, 五言律詩 1首, 七言律詩 5首, 五言絶句 7

153) 全書 上, 續集 卷一, pp. 276-278.

寒岡의 生涯와 文學

首, 六言絶句 1首, 七言絶句 39首, 排律 2首였으며, 그 가운데서도 七言絶句가 전체의 71%를 차지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다섯째, 漢詩를 그 內容에 따라 學問修德, 江湖述志, 致仕歸田, 節義清貧, 憂國歎時, 惜別追慕로 나누어 이를 感賞하였다.

여섯째, 詩的인 技巧에 있어서는 詩形式上的 技巧, 寒岡 詩에서 보이는 特異한 表現, 그의 詩에 나타나는 諷刺的 寓意法, 寫實的인 直叙 등을 들고, 이에 해당되는 詩를 例로 들어 說明하였다.

일곱번째, 漢詩 이외에 寒岡文集에서 보이는 文學 作品으로는 賦 1편과 日記形式의 紀行文 1편을 들어서 論述하고, 文學的인 性格이 多少 加味된 記, 序, 跋, 論에 對해서는 그 內容을 紹介함으로써 寒岡의 文學的인 수준을 理解하는 데 參考가 되도록 했다.